

오덕성 총장 및 본부 업무수행 중간평가 결과 보고서



2018. 5. 30.



충남대학교 교수회
총장 및 본부 업무수행 중간평가 특별위원회

발 간 사

총장 및 본부 업무수행 중간평가는 각 대학 교수회의 주요 활동으로 정착되어 왔습니다. 중간평가의 목적은 총장 임기 전반기의 업무수행 성과를 교수들이 평가하여, 총장 및 본부가 평가 결과를 후반기의 업무수행에 반영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바람직한 대학 운영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도록 촉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간평가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 교수회는 다음과 같은 자세로 평가 작업에 임했습니다. 우선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회 및 그 산하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 수집과 보고서 작성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수회는 평가의 공정성과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설문지 배포 시 대학본부가 제출한 ‘총장 공약사항 추진실적 요약본’을 동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평가보고서를 발간 후 1)결과발표 및 공청회 개최, 2)대학본부에 개선방안 제출 요구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총장과 본부는 평가 결과를 열린 자세로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교수회와 중간평가 특별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 및 분석 작업을 수행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설문지 회수율이 52.7%(849명 중 응답자 447명)로 과반을 넘기는 정도에 그쳐 당초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나름 설문참여를 독려하기도 했으나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해 아쉽고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대학본부는 중간평가 결과를 대학 발전 정책에 활용하여 후반기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간평가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오신 박수연 위원장님과 강석구 교수님, 유재형 교수님, 육소영 교수님, 전병화 교수님, 정선기 교수님 다섯 분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년 5월

충남대학교 교수회장 박 종 성

목 차

제1장	중간평가 특별위원회 활동 과정	1
제2장	설문조사 분석결과 요약	7
제3장	교육 분야 평가	14
제4장	연구 분야 평가	18
제5장	주요 추진 사업 평가	22
제6장	재정 분야 평가	28
제7장	조직 개편 및 네트워크 분야 평가	33
제8장	리더십 평가	38
제9장	개방형 질문 응답 내용	41
제10장	종합 의견	59

[부 록]

1.	중간평가용 설문지	69
2.	총장 공약사항 추진실적 요약본(기획처)	77

제1장 중간평가 특별위원회 활동 과정

1) 중간평가 목적

충남대학교 전교 교수회(이하 전교 교수회)에서는 2017년 11월 29일(수) 열린 전교 교수평의회 2017학년도 제4차 정기회의에서 ‘오덕성 총장 및 본부 업무수행 중간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곧이어 “총장 및 본부 업무수행 중간평가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7년 12월 18일(월) 첫 회의를 가졌다.

2016년 2월 18일 제18대 충남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한 오덕성 총장은 중간평가를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교수회와 특별위원회가 진행할 중간평가는 오 총장 및 보직자들이 수행한 그 동안의 주요 추진 사업과 학교 운영 전반이며 그 결과를 참고하여 향후 학교 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오 총장의 공약 내용을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지난 2년 동안 진행된 주요 추진 사업 등 총장과 본부 행정 업무 전반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중간평가를 위해 설문문항을 개발하고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중간평가 특별위원회 구성

전교 교수회에서는 2017학년도 10월 26일 제 11차 운영위원회에서 “총장 및 본부 업무수행 중간평가”를 실시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동시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섯 분을 섭외하였다. 위원장으로 교수회 부회장인 박수연 교수, 위원으로는 농업생명과학대학 강석구 교수, 자연과학대학 유재형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육소영 교수, 의과대학 전병화 교수, 사회과학대학 정선기 교수를 위촉하였다.

2017년 12월 18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겨울방학을 포함하여 2018

년 3월까지 수차례 회의를 거쳐 설문지 문안을 확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설문지 배포 및 회수 방법, 설문지 응답률 제고 방안, 익명성 담보 방안, 평가단위,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 처리방안, 평가기간, 중간평가보고서 발행 후 후속조치 방안 등에 대해서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여 평가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중간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교수회는 대학본부에 두 가지를 요청했다. 첫째, 총장의 공약사항을 교수회가 마련한 중간평가 항목 분류표에 따라 나열해줄 것. 둘째, ‘총장 공약사항 추진실적 요약본’을 제출할 것. 설문조사에서는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본부에서 보내온 ‘총장 공약사항 추진실적 요약본’을 설문지와 함께 배포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010년도와 2014년에 실시된 충남대 전임 총장들의 중간평가 자료, 다른 국립대학의 총장 중간평가 자료, 그리고 오덕성 총장이 총장 후보 당시 제시한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간평가의 설문문항을 만들었다.

3) 설문조사 시행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중간평가의 순서로 ① 총장의 공약 및 본부 업무수행 자료 검토, ② 중간평가 설문지 작성, ③ 설문조사, ④ 조사결과 분석 및 평가보고서 작성, ⑤ 이행계획 제출 요구를 계획하였다.

특별위원회에서는 평가 항목을 크게 1. 교육, 2. 연구, 3. 주요 추진 사업, 4. 재정, 5. 조직 개편 및 네트워크, 6. 리더십 분야로 분류하였다. 평가방법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인쇄물을 이용한 서면평가로 결정하였다.

특별위원회는 설문 응답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문지에 응답자의 정보를 일체 기재하지 않도록 배려했다. 위원회는 설문지 회수 시 봉인봉투와 회신용 봉투를 사용하며, 설문지 안내문 등을 통해 익명성 보장을 강조하고, 이메일, 교수회 단신, 문자 발송을 통해 설문조사 참여를 독려할 것 등을 교수회에 요청했다.

설문은 2018년 3월 26일(월)부터 4월 6일(금)까지 2주간 실시하기로 계획을 하였으나 설문지 배포가 사정 상 1주일 지연되어, 2018년 4월 9일(월)

부터 4월 13일(금)까지 1주 연장했다. 배포된 설문지의 안내문은 다음과 같다.

[교수회단신] 총장 및 본부 업무수행 중간 평가

2018.03.30.

존경하는 교수님께,

교수회가 시행하는 ‘총장 및 본부 업무수행 중간 평가’와 관련해서 몇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장 및 본부 업무수행 중간 평가’는 총장 임기 전반기의 업무수행 성과를 교수들이 평가하여, 총장 및 본부가 평가 결과를 후반기의 업무수행에 반영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바람직한 대학 운영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도록 촉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중간평가에서는 다음과 같이 새로 마련된 후속 조치들을 수행하려 합니다.

- 1) 중간평가 후 보고서 발간
- 2) 대학본부에 개선 권고 및 이행계획 제출 요구
- 3) 이행 계획 공청회 개최
- 4) 대학본부에 확정된 이행계획 제출 요구

중간 평가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교수님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전체 교수님이 중간 평가에 참여할 때만 그 결과가 의미 있고 중량감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 평가 설문지는 각 학과(학부) 조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배포하고 회수할 예정이니, 바쁘시더라도 조사 기간(3월 26일-4월 6일) 내에 꼭 작성하셔서 회송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년과 다르게 교수님의 평가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총장의 ‘추진실적 요약본’을 첨부하였습니다. 각 공약사항의 이행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설문지 문항마다 실적 요약본 해당 페이지를 표시했습니다(예: 공약 I.2-3).

이번 설문지 조사는 응답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회신용 봉투>의 겉면의 교수님 성함은 설문지가 유효한 응답자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며 실제로 설문지를 넣을 <봉인 봉투>에는 인적 사항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인쇄소 사정으로 <봉인봉투>가 누락되어 봉인 봉투는 재발송됩니다.)

교수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이번 중간평가를 위한 설문지 작성 등 모든 일을 맡아주신 중간평가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년 3월 30일

교수회장 박종성 드림

충남대학교 제18대 오덕성 총장 및 본부 업무수행 중간평가 설문기간 연장 안내

충남대학교 제18대 오덕성총장 및 대학본부 업무수행 중간평가를 아래와 같이 일주일 연장하오니 각 단과대학(원)에서는 가급적 소속 교수님께서 기한 내에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장기간 : 2018. 4. 9.(월) ~ 4. 13.(금)
2. 제출방법 : 학과사무실이나 단과대학(원) 행정실

[교수회단신] 오덕성 총장 및 본부 업무수행 중간평가 결과발표 및 공청회 개최 안내

존경하는 교수님께,

안녕하십니까? 교수회장 박종성입니다. 지난 2018년 3월 26일(월)부터 4월 13일(금)까지 총장 중간평가 관련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응답대상자 849명 중 447명(52.7%)이 설문에 응했습니다.

교수회 ‘총장 중간평가 특별위원회’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결과를 발표하고 대학본부의 개선안을 들어보는 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일 시 : 2018. 5. 30.(수) 오후 16:00 ~
2. 장 소 : 인문대학 문원강당(W7)

3. 참석대상 : 전임교원 등

최종적으로는 응답대상자 849명(교원 920명 중 퇴직자 2명, 보직자 27명, 휴직자 2명, 해외파견 16명, 연구년제 24명 제외) 중 447명이 응답하여 전체 교수의 52.7%가 중간평가에 참여하였다. 회수한 설문지는 전교 교수회 사무실에서 회신용 봉투를 제거하여 뒤섞은 후 봉인 봉투를 제거하고 교수회 사무실에서 이틀에 걸쳐 입력 작업을 마쳤다. 개방형 질문에 대한 기입 내용은 항목별로 원문 그대로 입력하였으며, 입력이 끝난 설문지는 교수회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4) 보고서의 구성과 분석 방법

중간평가 결과 보고서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충실하게 기술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먼저 제2장에서 설문조사의 분석결과를 요약·정리하고, 제3장에서 제8장까지는 설문조사의 6개 분야별로 장을 나누어 해당 영역의 항목별

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있어서는 5점 척도로 구성된 응답지별로 ‘매우 잘함’은 5점, ‘잘함’은 4점, ‘보통’은 3점, ‘잘못함’은 2점, ‘매우 잘못함’은 1점을 부여한 뒤 항목별 평균값을 구해 이를 기본적인 분석 도구로 삼았다.

본문에서는 우선 6개 분야 24개 소항목의 ‘평점평균’, ‘표준편차’, ‘5점 척도별 비율분포’를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대항목 분야별로 각 항목별 차이를 상세하게 기술함으로써 각 소항목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 차이를 독자가 스스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분석 결과를 충실하게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은 시도하지 않았다.

제9장은 설문지에 제시된 개방형 질문들에 대한 의견 내용을 원문 그대로 취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개방형 질문 응답 내용은 6개 영역별로 첨부되었다. 물론 의견의 내용(표현)은 가감 없이 그대로 두었다.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 내용들은 주관적인 평가일 수 있으나 논점에 구체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제10장에는 본 설문 결과의 종합 의견을 정리하였다. 중간평가 특별위원회는 중간평가 결과보고서를 통해 조사 항목 전체에 대해 평가결과를 충실히 전달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였다.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일은 본 특별위원회에게 일을 맡긴 전교 교수회의 몫일 것이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는 전교 교수회의 최종적인 판단을 돕고자 측정 결과에 기초한 집필 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교수회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서술하였다. [부록]에는 본 중간평가에 사용한 ‘설문지’와 ‘총장 공약사항 추진실적 요약본’을 첨부하였다.

제2장 설문조사 분석결과 요약

1) 설문조사 응답률

이번 조사는 전체 재적자 920명에서 부재자 71명을 제외한 849명의 대상자 중 447명이 응답하여 52.7%의 응답률을 보였다. 전공에 따른 응답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인문사회계열(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상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자유전공학부, 경영대학원, 국가안보융합학부), 이공계열(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생명시스템과학대학,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의약계열(의과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신약전문대학원)로 분류하였으며 분류가 어려운 예술대학, 생활과학대학, 사범대학을 기타 계열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표 2-1> 계열별 설문조사 응답률

대학(원)	재 적	부재자	응답대상자	응답자	응답률(%)
인문사회계열*			206	116	56.3
이 공 계 열**			349	192	55.0
의 약 계 열***			208	72	34.6
기 타 계 열****			86	67	77.9
합 계	920	71	849	447	52.7

*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상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자유전공학부, 경영대학원, 국가안보융합학부

**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생명시스템과학대학,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 의과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신약전문대학원

**** 예술대학, 생활과학대학, 사범대학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곳은 대상자 86명 중 67명이 응답한 ‘기타계열’(77.9%)이며, 다음으로 ‘인문사회계열’은 대상자 206명 중 116명이 응답하여 56.3%, ‘이공계열’은 349명의 대상자 중 192명이 응답하여 55.0%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의약계열’은 208명의 대상자 중 72명이 응답하여 34.6%의 응답률을 보였다.

2) 계열별 응답자 구성비

각 계열별 응답자 구성비를 살펴보면, ‘이공계열’이 전체 419명의 응답자 중 192명(43.0%)을 차지해 가장 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116명이 응답한 ‘인문사회계열’(26.0%), 응답자 72명의 ‘의약계열’(16.1%), 응답자 67명의 ‘기타계열’(14.9%) 순이었다.

<표 2-2> 계열별 응답자 구성비

단 과 대	응답자	전체 응답자 대비(%)
인문사회계열	116	26.0
이 공 계 열	192	43.0
의 약 계 열	72	16.1
기 타 계 열	67	14.9
합 계	44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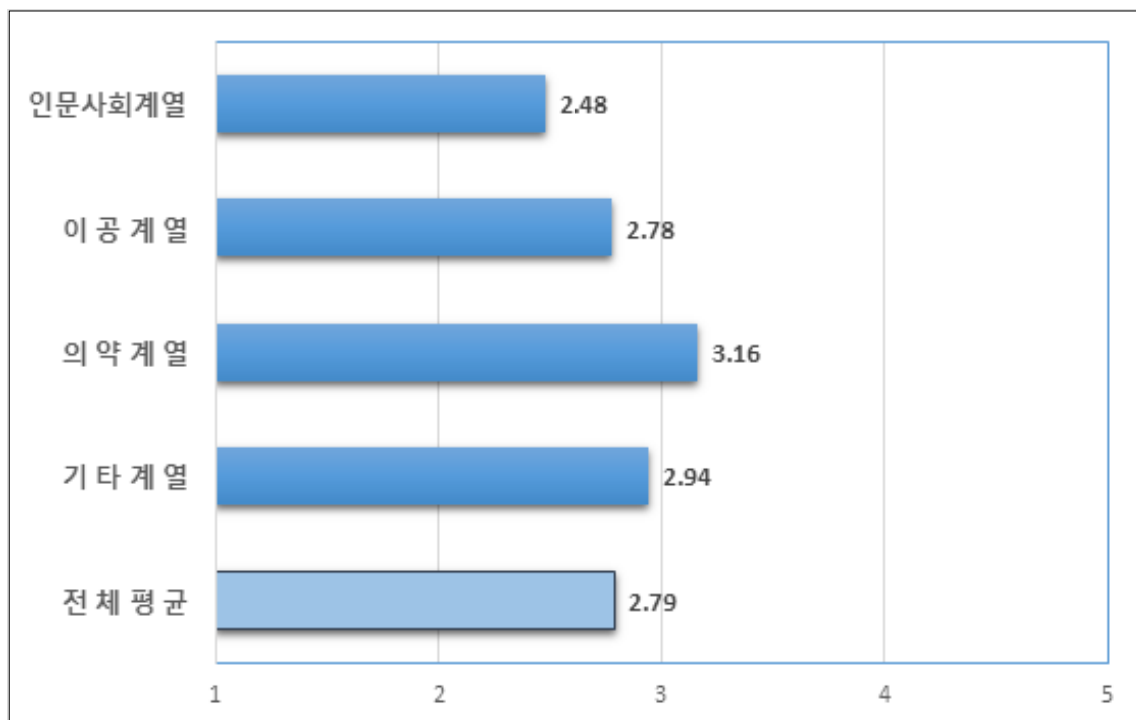
3) 계열별 전체 평균

계열별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의약계열’이 5점 만점에서 3.1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기타계열’(2.94점), ‘이공계열’(2.78점), ‘인문사회계

열’(2.48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은 2.79점이었다.

<표 2-3> 계열별 전체평균 및 표준편차

계 열	평 균	표준편차
인문사회계열	2.48	0.91
이 공 계 열	2.78	0.93
의 약 계 열	3.16	0.97
기 타 계 열	2.94	0.94
전 체 평 균	2.79	0.96



<그림 2-1> 계열별 전체평균

4) 계열별 대항목 평균

이번 중간평가 설문조사는 ‘교육’, ‘연구’, ‘주요 추진사업’, ‘재정’, ‘조직개편 및 네트워크’, ‘리더십’ 등 6개 분야를 대항목으로 설정하고, 각 분야별로 2~5개의 소항목을 두어 모두 24개의 소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대항목별로 구성된 소항목에 대한 계열별 평균은 <표 2-4>와 같다.

6개 대항목 중에서 ‘교육 분야’(2.99점)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요추진 사업’(2.94점), ‘조직개편 및 네트워크 분야’(2.74점), ‘재정 분야’(2.73점), ‘리더십’(2.65점) 순이었고, ‘연구 분야’(2.58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6개 대항목 모두 평균이 5점 척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3점(보통)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 보면, 의약계열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3점 이상으로 보통 이상을 보여준 반면, 그 외의 모든 계열의 평가에서는 대체로 보통 이하였다. 특히 전체에서 평가가 가장 낮은 항목은 인문사회계열의 ‘리더십’(2.26점)과 ‘연구 분야’(2.27점)였다.

<표 2-4> 계열별 대항목 평균

대항목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의약계열	기타계열	전체평균	표준편차
교육 분야	2.62	2.99	3.44	3.13	2.99	0.96
연구 분야	2.27	2.52	3.00	2.83	2.58	1.04
주요 추진 사업	2.65	2.93	3.27	3.12	2.94	0.99
재정 분야	2.46	2.72	3.08	2.84	2.73	1.00
조직 개편 및 네트워크분야	2.45	2.76	3.05	2.88	2.74	1.03
리더십	2.26	2.66	3.10	2.77	2.65	1.23
전체평균	2.48	2.78	3.16	2.94	2.79	0.96

5) 계열별 소항목 평균

소항목별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주요 교육 분야의 소항목인 ‘글로벌 교양 강화’가 3.07점으로 가장 높았고, 주요 추진 사업의 ‘대전세종충청 연계 캠퍼스 광역화’는 3.06점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연구 분야의 소항목인 ‘교수 연구 인센티브 및 경쟁력 강화’가 2.37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고, ‘조직 개편 및 네트워크’ 중 ‘인사 및 평가시스템 개선’ 항목이 2.59점으로 평균이 두 번째로 낮았다.

<표 2-5> 계열별 소항목 평균

대항목	소 항 목(31개)	인문사회 계열	이공 계열	의약계열	기타계열	전체평균	표준편차
교육 분야	교양교육의 내실화	2.59	3.07	3.36	3.19	3.01	1.00
	글로벌 교양강화	2.63	3.13	3.45	3.24	3.07	1.01
	전공교육 내실화	2.49	2.85	3.45	2.99	2.88	1.15
	취업 경쟁력 강화	2.76	2.89	3.46	3.09	2.99	1.08
연구 분야	교수 역량 강화	2.29	2.63	3.10	2.82	2.65	1.12
	교수 연구 인센티브 및 경쟁력 강화	2.03	2.33	2.80	2.61	2.37	1.15
	연구 및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및 연구소 경쟁력 강화	2.46	2.58	3.07	2.96	2.69	1.13
	글로벌 교수 연구경쟁력 강화	2.30	2.55	3.00	2.91	2.61	1.13
주요 추진 사업	학문의 동반성장	2.38	2.74	3.13	2.97	2.75	1.06
	글로벌 캠퍼스 구축	2.64	2.84	3.27	3.12	2.90	1.12
	대전세종충청 연계 캠퍼스 광역화	2.84	3.01	3.35	3.24	3.06	1.21
	기숙형 교양교육(RC) 운영	2.59	3.05	3.27	3.20	2.99	1.10
	환경 친화 인프라 구축	2.77	2.99	3.32	3.07	3.00	1.15
재정 분야	발전기금 확보	2.51	2.78	3.11	3.05	2.81	1.12
	재정건전성 제고	2.45	2.68	3.07	2.81	2.71	1.11
	재정의 효율적 운영	2.43	2.65	2.93	2.63	2.64	1.13
	교직원의 복지	2.33	2.64	2.87	2.75	2.65	1.13
	교직원 직무역량 강화	2.53	2.79	3.18	2.97	2.82	1.12
조직 개편 및 네트워크	충남대 행정 시스템 개편	2.39	2.73	3.03	2.93	2.73	1.14
	산하 기관별 행정 시스템 개선	2.61	2.84	2.94	2.99	2.83	1.08
	인사 및 평가시스템의 개선	2.19	2.62	2.93	2.73	2.59	1.15
	지역과 중앙 네트워크의 강화	2.57	2.81	3.20	2.88	2.83	1.13
리더십	대학경영 및 최고경영자로서의 직무수행	2.22	2.63	3.04	2.78	2.62	1.30
	대학의 민주적 시스템 구축 및 경영	2.29	2.68	3.14	2.76	2.68	1.25
전체평균		2.47	2.77	3.15	2.94	2.79	0.96

6) 소항목별 응답 태도 분석

<표 2-6>은 응답자들의 각 항목별 응답 경향을 전체적으로 비교한 결과 요약표이다. 24개 소항목의 전체 평균은 2.79점이었으며 그 중 평가가 가장 높은 소항목은 ‘글로벌 교양강화’(3.07점)였고, 다음으로 ‘대전세종충청 연계 캠퍼스 광역화’(3.06점), ‘교양교육의 내실화’(3.01점), ‘환경 친화 인프라 구축’(3.00점) 순이었다. 이들 항목만이 3점 이상으로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반면에 평가가 가장 낮은 소항목은 ‘교수 연구 인센티브 및 경쟁력 강화’(2.37점), ‘인사 및 평가 시스템 개선’(2.59점), ‘글로벌 교수의 연구 경쟁력 강화’(2.61점) 순이었다. 전체 24개 소항목 중에서 보통(3점)을 넘은 항목은 ‘글로벌 교양강화’(3.07점), ‘대전세종충청 연계 캠퍼스 광역화’(3.06점), ‘교양교육의 내실화’(3.01점), ‘환경 친화 인프라 구축’(3.00점) 이렇게 4개 항목이었다.

<표 2-6> 소항목별 응답자 태도

대항목	소항목(31개)	평점 평균	표준 편차	평점별 비율(%)				
				매우 잘못함	잘못함	보통	잘함	매우 잘함
교육 분야	교양교육의 내실화	3.01	1.00	7.5	20.2	43.4	21.8	7.2
	글로벌 교양강화	3.07	1.01	6.3	20.7	41.0	23.6	8.3
	전공교육 내실화	2.88	1.15	12.6	25.0	33.6	19.4	9.5
	취업 경쟁력 강화	2.99	1.08	7.6	25.6	36.9	20.0	9.9
연구 분야	교수 역량 강화	2.65	1.12	16.5	30.7	30.5	16.0	6.3
	교수 연구 인센티브 및 경쟁력 강화	2.37	1.15	27.2	31.5	22.7	14.4	4.3
	연구 및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및 연구소 경쟁력 강화	2.69	1.13	16.6	27.9	31.7	17.5	6.3
	글로벌 교수 연구 경쟁력 강화	2.61	1.13	17.6	32.7	26.4	17.8	5.6
주요 추진 사업	학문의 동반성장	2.75	1.06	12.1	29.2	36.6	15.7	6.3
	글로벌 캠퍼스 구축	2.90	1.12	11.7	24.1	34.9	20.9	8.3
	대전세종충청 연계 캠퍼스 광역화	3.06	1.21	11.5	22.0	29.2	23.8	13.5
	기숙형 교양교육(RC) 운영	2.99	1.10	10.4	20.1	38.7	21.5	9.3
	환경 친화 인프라 구축	3.00	1.15	10.8	22.0	34.2	22.0	11.0
재정 분야	발전기금 확보	2.81	1.12	14.2	24.4	35.0	19.2	7.2
	재정건전성 제고	2.71	1.11	14.9	29.3	32.7	16.7	6.5
	재정의 효율적 운영	2.64	1.13	17.3	30.6	28.5	17.8	5.8
	교직원의 복지	2.65	1.13	18.7	25.4	33.9	16.0	6.1
	교직원 직무역량 강화	2.82	1.12	14.2	24.3	33.7	21.1	6.7
조직 개편 및 네트 워크	충남대 행정 시스템 개편	2.73	1.14	15.8	27.3	32.9	16.4	7.7
	산하 기관별 행정 시스템 개선	2.83	1.08	13.1	22.5	39.4	18.5	6.5
	인사 및 평가시스템의 개선	2.59	1.15	20.6	26.9	32.4	13.3	6.8
	지역과 중앙 네트워크의 강화	2.83	1.13	13.8	23.3	37.6	16.7	8.6
리더 십	대학경영 및 최고경영자로서의 직무수행	2.62	1.30	25.1	24.7	23.8	16.1	10.4
	대학의 민주적 시스템 구축 및 경영	2.68	1.25	21.6	25.7	25.2	18.4	9.1
전체		2.79	0.96	14.9	25.7	33.1	18.5	7.8

제3장 교육 분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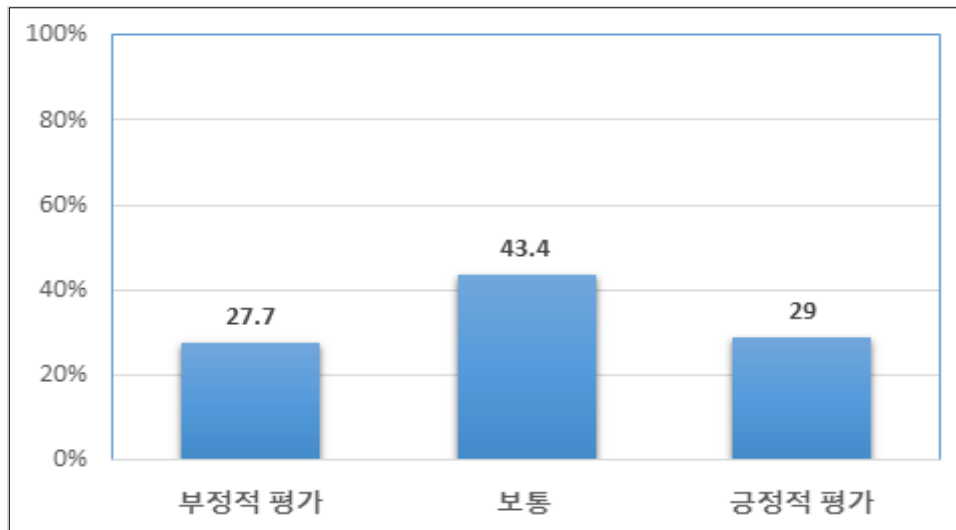
교육분야에 대한 평가는 (1)교양교육의 내실화, (2)글로벌 교양강화, (3)전공교육 내실화, (4)취업 경쟁력 강화 등 4개 소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교육 분야의 전체 평균은 2.99점으로 전항목 평균 2.79점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4개 소항목 중에서 (2)글로벌 교양 강화 항목이 가장 높은 평가(3.07점)를 받았고, (3)전공교육 내실화 항목이 가장 낮은 평가(2.88점)를 받았다. 소항목의 표준편차는 1.00에서 1.15까지의 분포를 보였으며, 전공교육 내실화 항목의 표준편차가 1.15로 가장 높았다. 각 소항목의 평가에 대한 그림에서 부정적 평가비율은 “매우 잘못함”과 “잘못함”으로 평가한 비율의 합이며, 긍정적 평가비율은 “잘함”과 “매우 잘함”으로 평가한 비율의 합이다. 4개 소항목에 대한 긍정적 평가비율은 최소 14.5%에서 최대 16.0%인 반면에 부정적 평가비율은 최소 13.5%에서 최대 18.8%까지 높게 나타났다. 계열별 평가는 해당 소항목 분석에서 간략히 언급하였다.

<표 3-1> 교육 분야

평가 항목	평점별 비율(%)					평점평균	표준편차
	매우 잘못함	잘못함	보통	잘함	매우 잘함		
교양교육의 내실화	7.5	20.2	43.4	21.8	7.2	3.01	1.00
글로벌 교양강화	6.3	20.7	41.0	23.6	8.3	3.07	1.01
전공교육 내실화	12.6	25.0	33.6	19.4	9.5	2.88	1.15
취업 경쟁력 강화	7.6	25.6	36.9	20.0	9.9	2.99	1.08

1) 교양 교육의 내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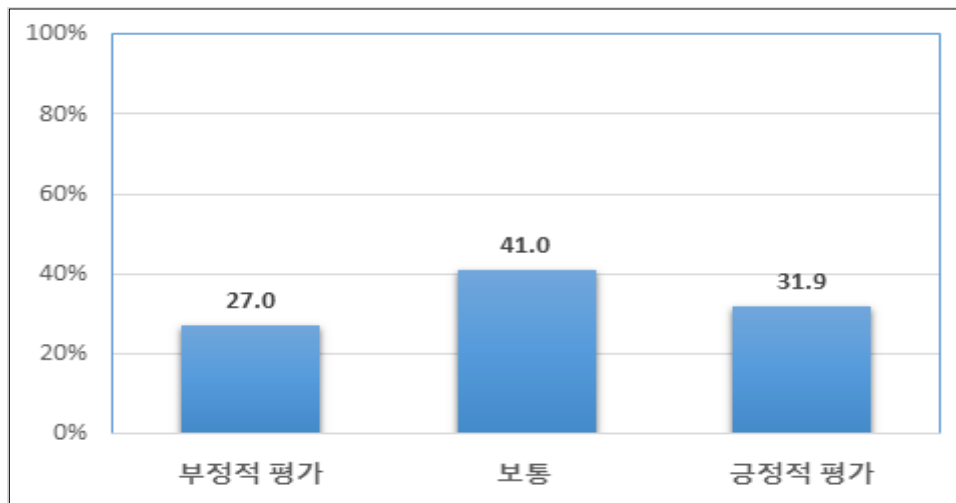
교양교육 내실화에 대한 설문은 1)학문기초교양 및 역량별 교양교육의 내실화(공약), 2)인문학 기반 교양교육 내실화 시스템 구축(공약), 3)기초교양 교육원을 교양교육대학으로 확대 개편(공약) 등 3개 문항을 제시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평균은 3.01점으로 나머지 4개 소항목 중에서 두 번째로 높았으며, 긍정적 평가(29.0%)가 부정적 평가(27.7%)보다 높았다. 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2.59점)이 가장 낮았고, 의학계열(3.36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 교양 교육의 내실화

2) 글로벌 교양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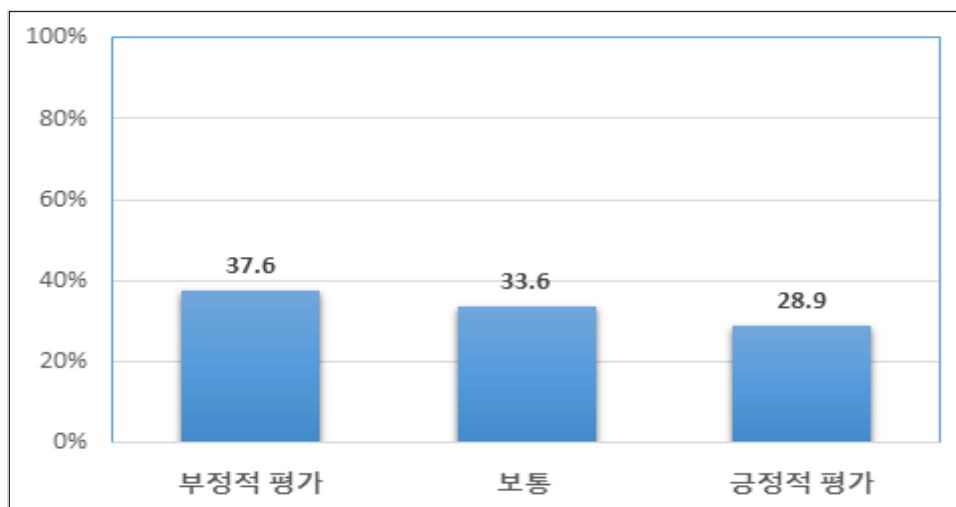
글로벌 교양 강화에 대한 설문은 1)인성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공약), 2)비교과 교육프로그램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공약) 등 2개 문항을 제시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평균은 3.07점으로 나머지 4개 소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긍정적 평가(31.9%)가 부정적 평가(27.7%)를 약간 상회하였다. 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2.63점)이 가장 낮았고, 의약계열(3.45점)이 가장 높았다.



<그림 3-2> 글로벌 교양 강화

3) 전공 교육 내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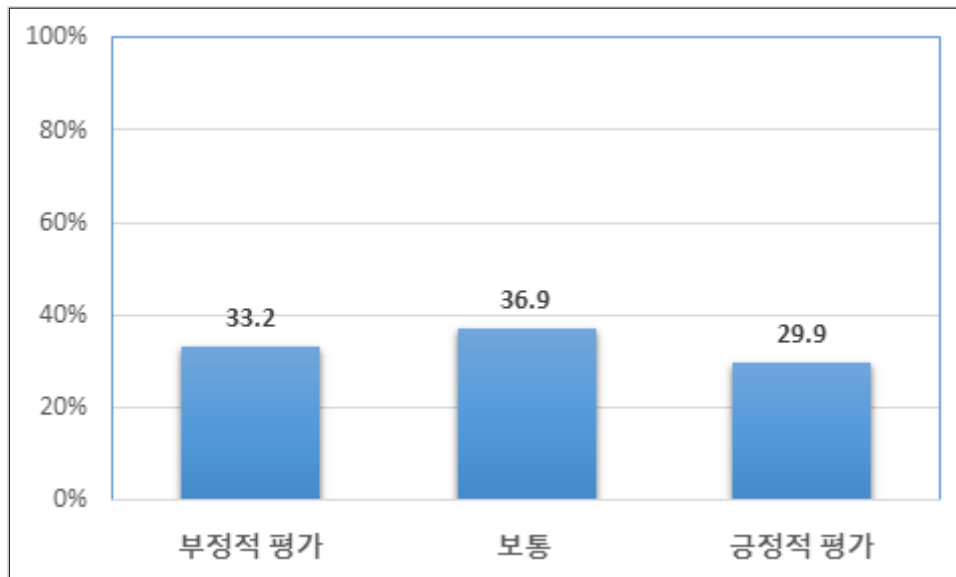
전공교육 내실화에 대한 설문은 1)전공교육 운영방법의 다양화(공약), 2) 융합기반 전공교육 내실화 시스템 구축(공약), 3)시대변화에 대응하는 융·복합 연계프로그램 확대(공약) 등 3개 문항을 제시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평균은 2.88로 나머지 4개 소항목 중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부정적 평가가 37.6% 긍정적 평가가 28.9%였다. 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 (2.49점)이 가장 낮았고, 의학계열(3.45점)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림 3-3> 전공 교육 내실화

4) 취업 경쟁력 강화

취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설문은 1)학문단위를 넘나드는 자기설계전공의 활성화(공약), 2)산업수요기반 융복합 전공교육 강화(공약), 3)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학제적 현장실습 강화(공약) 등 3개 문항을 제시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평균은 2.99점으로 나머지 4개 소항목 중에서 두 번째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이 2.76점으로 가장 낮았고, 의학과계열이 3.46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림 3-4> 취업 경쟁력 강화

제4장 연구 분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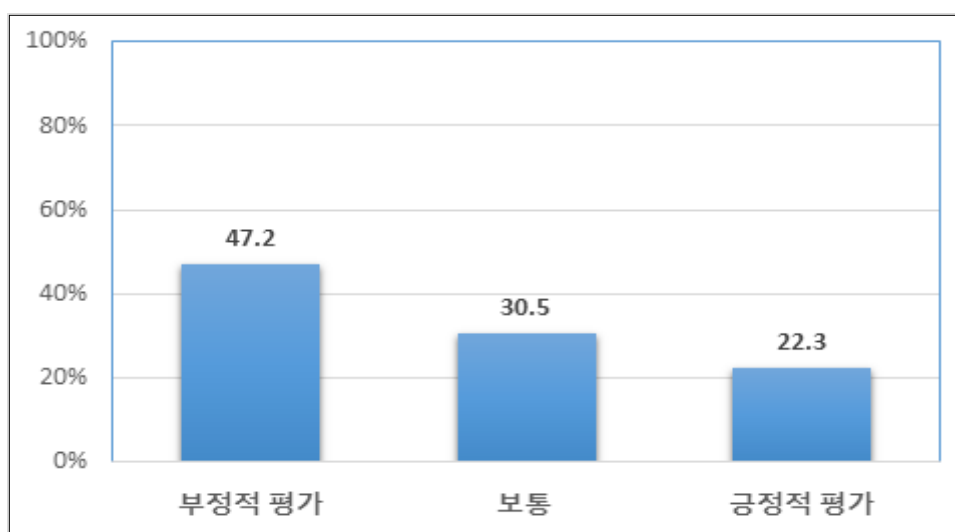
연구분야는 4가지 항목의 평가를 하였다. 그 항목으로는 교수 역량 강화, 교수 연구 인센티브 및 경쟁력 강화, 연구 및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및 연구소 경쟁력 강화, 그리고 글로벌 교수 연구경쟁력이다. <표 4-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 분야 중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것은 연구 및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및 연구소 경쟁력 강화항목으로 2.69점이었고, 가장 낮은 것으로 교수 연구 인센티브 및 경쟁력 강화항목이 2.37점이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연구 분야의 평점(2.58점)이 교육, 재정, 주요추진사업, 조직개편 및 네트워크 및 리더십 분야와 비교할 때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교수 연구 인센티브 및 경쟁력 강화항목은 최저평가를 받아 그 개선에 대한 방안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분야별 연구 분야에 평가에 있어 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이 가장 낮은 2.27점을 획득하였고, 이공계열, 기타계열, 의학계열 순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문사회계열에서도 가장 낮은 항목은 교수 연구 인센티브 및 경쟁력 강화항목(2.06점)이었다.

<표 4-1> 연구 분야

평가 항목	평점별 비율(%)					평점평균	표준편차
	매우 잘못함	잘못함	보통	잘함	매우 잘함		
교수 역량 강화	16.5	30.7	30.5	16.0	6.3	2.65	1.12
교수 연구 인센티브 및 경쟁력 강화	27.2	31.5	22.7	14.4	4.3	2.37	1.15
연구 및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및 연구소 경쟁력 강화	16.6	27.9	31.7	17.5	6.3	2.69	1.13
글로벌 교수 연구경쟁력 강화	17.6	32.7	26.4	17.8	5.6	2.61	1.13

1) 교수 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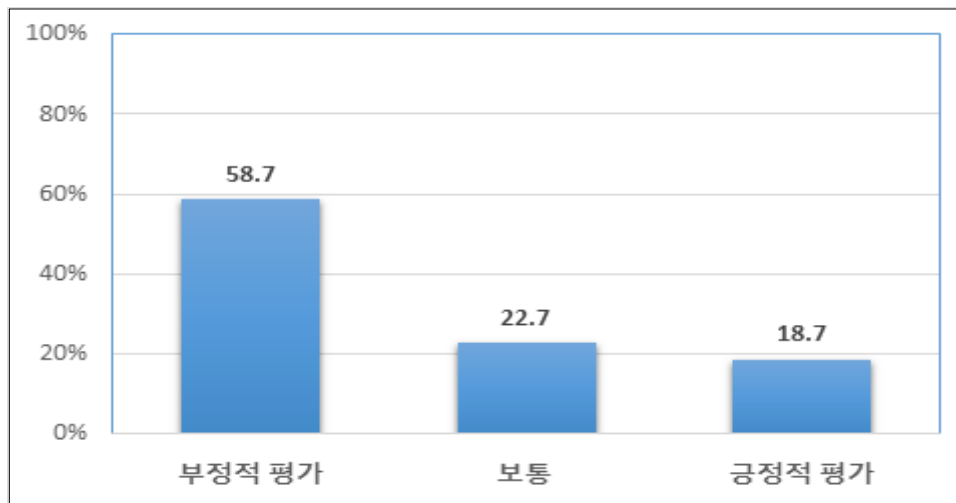
교수역량강화 항목의 평점은 2.65 ± 1.12 로 나타나 연구 분야 평균평점(2.69점)수준의 평가를 받았으며, 전체 평가분야 평균평점(2.79점)보다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비율로 보면 부정적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다소 높은 52.8%로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이 2.29점의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고 의학계열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림 4-1> 교수 역량 강화

2) 교수 연구 인센티브 및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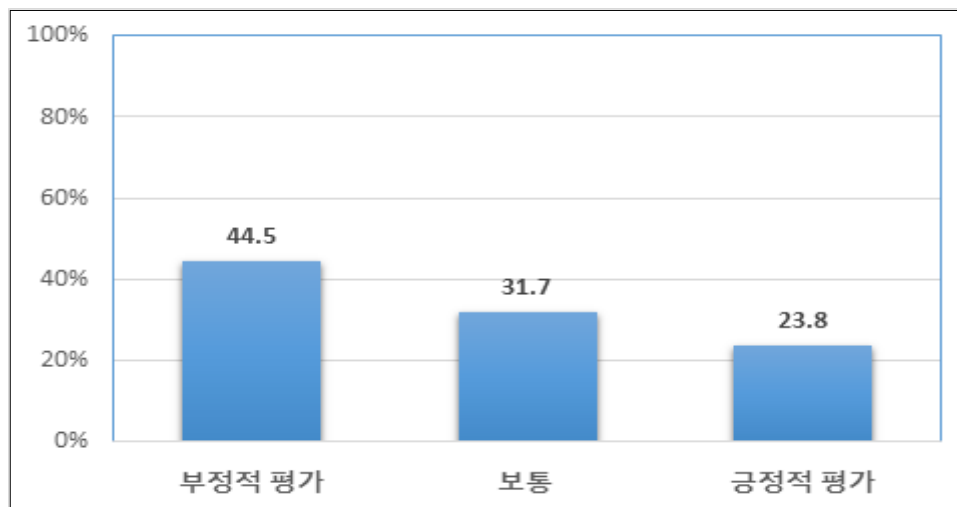
교수 연구 인센티브 및 경쟁력 강화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 항목의 평점은 2.37 ± 1.15 로 나타나 전체평가분야의 평균평점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비율로 보면 부정적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높은 58.7%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인문사회계열에서 2.03점의 평가를 받아 중간 평가 전체평가 항목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의학계열에서는 비교적 높은 평점(2.80점)을 받았다.



<그림 4-2> 교수 연구 인센티브 및 경쟁력 강화

3) 연구 및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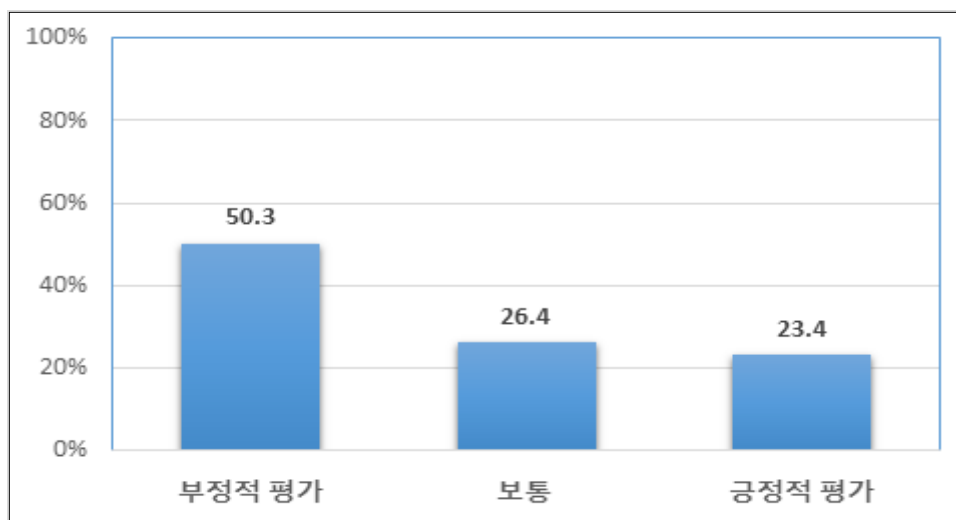
연구 및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 항목의 평점은 2.69 ± 1.13 로 나타나 전체분야 평균평점(2.79점)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비율로 보면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보다 높은 55.5%로 나타났으며, 연구 분야 평가항목 중 유일하게 긍정적 평가를 받은 항목이었다. 계열별로는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인문사회계열에서 2.46점의 낮은 평가를 받았고 의학계열에서 비교적 높은 평점(3.07점)을 받았다.



<그림 4-3> 연구 및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4) 글로벌 교수 연구 경쟁력 강화

글로벌 교수 연구 경쟁력 강화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 항목의 평점은 2.61 ± 1.13 으로 나타나 전체 평점(2.79점)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비율로 보면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거의 같은 비율인 50.3% : 49.7%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인문사회계열에서 2.30점의 낮은 평가를 받았고 의학계열에서 비교적 높은 평점(3.00점)을 받았다.



<그림 4-4> 글로벌 교수 연구 경쟁력 강화

제5장 주요 추진 사업 평가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한 설문은 1)학문의 동반성장, 2)글로벌 캠퍼스 구축, 3)대전세종충청 연계 캠퍼스 광역화, 4)기숙형 교양교육(RC)운영, 5)환경 친화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총 6개의 소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위 분야에 대한 전체 평균은 2.94점이며, 이번 중간평가의 5개 대항목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전세종충청 연계 캠퍼스 광역화 사업’에 대한 평가는 3.06점으로 전체 24개 소항목 중 글로벌 교양강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5개의 개별 소항목 중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학문의 동반성장 사업’으로 2.75점의 평점평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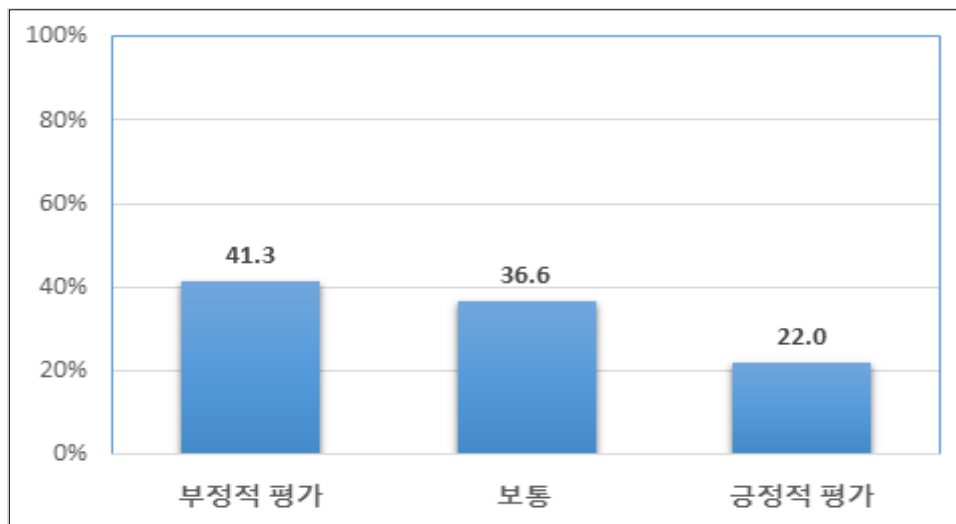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한 표준편차는 1.13으로 전체 6개의 대항목 중 세 번째에 해당되며, 전체 5개의 소항목 모두의 표준편차가 1이상이 되었다. 특히 ‘글로벌 교양강화’ 항목과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대전·세종·충청 연계 캠퍼스 광역화 사업’의 경우 표준편차가 1.21로 리더십의 소항목을 제외할 경우 가장 높은 표준편차를 보인다. 이는 교수회 구성원들의 의견이 다양함을 의미하며, 사업 추진 시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할 할 것으로 사료된다. 5개 소항목 별로 평가 결과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1> 주요 추진 사업

평가 항목	평점별 비율(%)					평점평균	표준편차
	매우 잘못함	잘못함	보통	잘함	매우 잘함		
학문의 동반성장	12.1	29.2	36.6	15.7	6.3	2.75	1.06
글로벌 캠퍼스 구축	11.7	24.1	34.9	20.9	8.3	2.90	1.12
대전세종충청 연계 캠퍼스 광역화	11.5	22.0	29.2	23.8	13.5	3.06	1.21
기숙형 교양교육(RC) 운영	10.4	20.1	38.7	21.5	9.3	2.99	1.10
환경 친화 인프라 구축	10.8	22.0	34.2	22.0	11.0	3.00	1.15

1) 학문의 동반성장

총장의 주요 추진 사업 중 학문의 동반성장에 대한 평가는 2.75점으로 전체 5개의 소항목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전체 응답자 중 긍정적인 평가는 22.0%로 부정적인 평가의 41.3%에 비해 절반에 해당하는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인다. 긍정적인 평가 중 매우 잘함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6.3%로 매우 잘못함이라고 지적한 12.1%에 비해 절반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향성은 잘함 과 잘못함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본 항목의 표준편차는 1.06으로 5개의 소항목 중 가장 낮은 표준편차를 보인다. 이는 구성원들 중 상당한 인원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지시하며, 향후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 학문의 동반성장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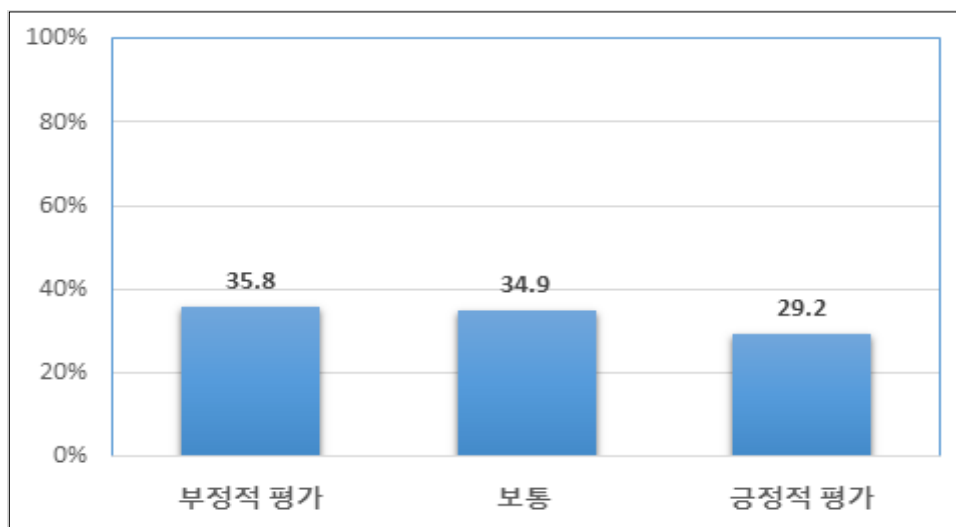


<그림 5-1> 학문의 동반성장

2) 글로컬 캠퍼스 구축

총장의 주요 추진 사업 중 글로컬 캠퍼스 구축에 대한 평가는 2.90점이며, 이는 전체 5개의 소항목 중 두 번째로 낮은 평가에 해당한다. 전체 응답자 중 긍정적인 평가는 29.2%로 부정적인 평가의 35.8%에 비해 약 6%의 차이

를 보인다. 긍정적인 평가 중 매우 잘함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8.3%로 매우 잘못함이라고 지적한 11.7%에 비해 다소 낮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잘함 과 잘못함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 본 항목의 표준편차는 1.12로 5개의 소항목 중 세 번째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학내 구성원들은 총장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글로벌 및 로컬 네트워크를 연계한 글로벌 캠퍼스의 구축이 기대에 다소 못 미친다고 생각함을 의미할 수 있으며, 남은 기간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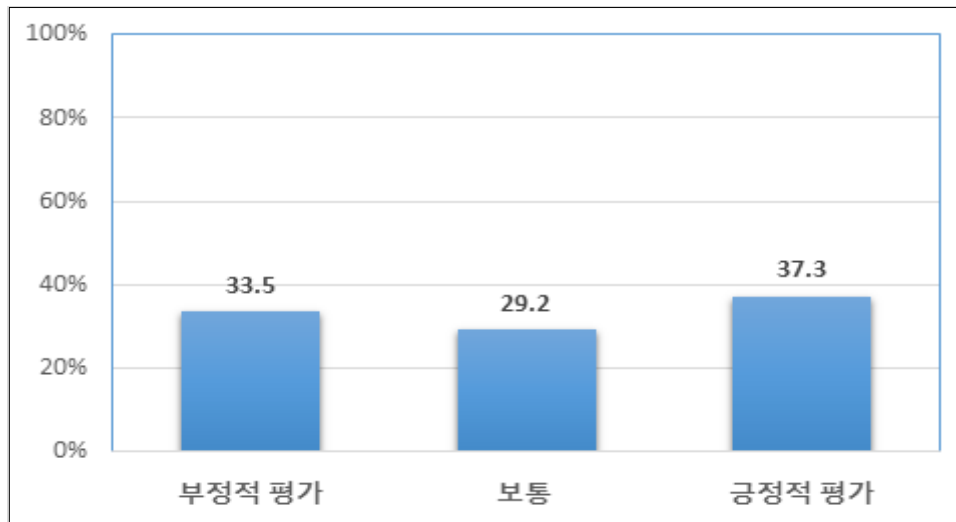


<그림 5-2> 글로벌 캠퍼스 구축

3) 대전세종충청 연계 캠퍼스 광역화

총장의 주요 추진 사업 중 대전세종충청 연계 캠퍼스 광역화 사업은 전체 24개 소항목 중 두 번째로 높은 3.06점이며, 주요추진사업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본 항목의 경우 긍정적인 평가가 37.3%로 부정적인 평가 33.5%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보인다. 긍정적인 평가 중 매우 잘함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13.5%로 매우 잘못함이라고 지적한 11.5%에 비해 2% 정도 높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잘함 과 잘못함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 본 항목의 표준편차는 1.21로 다른 소항목의 평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차를 보이며, 이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나 고려할 수준의 반대 의견도 있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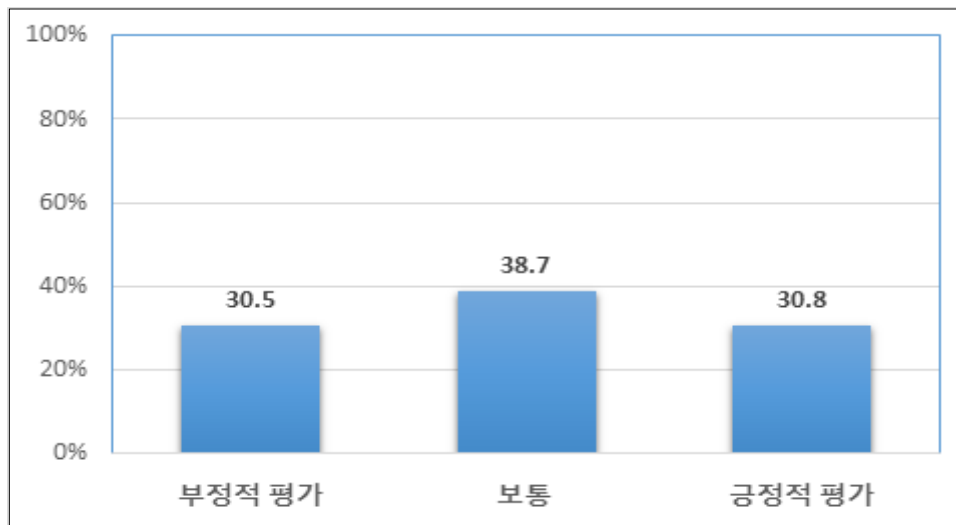
지시한다. 따라서 총장은 남은 기간 연계 캠퍼스 광역화 사업을 현행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속하되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5-3> 대전세종충청 연계 캠퍼스 광역화

4) 기숙형 교양교육(RC)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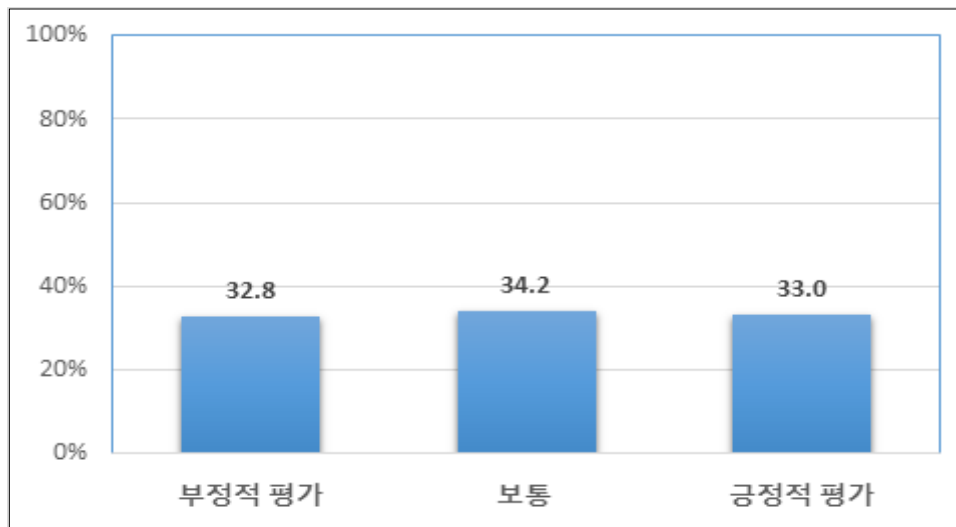
총장의 주요 추진 사업 중 기숙형 교양교육 운영 사업의 경우 5개의 소항목 중 중립적인 의견이 가장 높은 38.7%로 나타났으며, 이를 이어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각각 30.8%와 30.5%로 거의 동일하게 평가되었다. 평점의 경우 2.99점으로 5개의 소항목 중 세 번째에 해당한다. 기숙형 교양교육 운영 사업의 경우 표준편차가 상대적으로 낮은 1.1로 대학 구성원의 의견은 중립적인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개방형 질문 응답내용 중 기숙형 교양교육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반대하는 여론의 경우 매우 강력하게 피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며, 추후 사업 추진에 있어 반대여론에 대한 수렴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5-4> 기숙형 교양교육(RC) 운영

5) 환경 친화 인프라 구축

총장의 주요 추진 사업 중 환경 친화 인프라 구축 사업은 3.00점의 평점으로 5개의 소항목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긍정적인 평가가 33.0%로 부정적인 평가 32.8%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1.15이다. ‘매우 잘함’과 ‘매우 잘못함’이 유사한 비율을 보이며, ‘잘함’과 ‘잘못함’도 동일하게 평가되었다. 개방형 질문 응답을 살펴볼 때 특히 중앙도서관의 신축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으나, 교수회관 및 게스트하우스의 부재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따라서 추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서관의 신축을 충실히 마무리하고 교수회관 및 게스트하우스 사업의 추진을 위한 토대가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5-5> 환경 친화 인프라 구축

제6장 재정 분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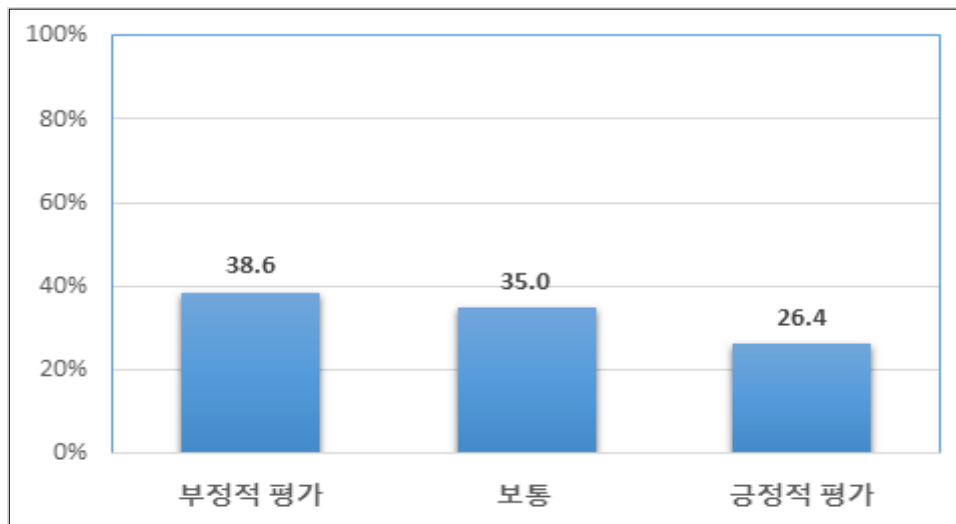
재정분야에 대한 평가는 1)발전기금 확보, 2)재정건전성 제고, 3)재정의 효율적 운영, 4)교직원의 복지, 5)교직원 직무역량 강화 등 5개의 소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재정분야의 전체 평균은 2.73점으로 전항목 평균 2.79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5개의 소항목 중 ‘교직원 직무역량 강화’ 항목이 가장 높은 평가(2.82점)를 받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영’ 항목이 가장 낮은 평가(2.64점)를 받았다. 소항목의 표준편차는 1.11에서 1.13까지의 분포를 보였으며, 재정 건전성 제고의 항목이 1.11로 가장 낮았다. 각 소항목의 평가에 대한 그림에서 부정적 평가 비율은 ‘매우 잘못함’과 ‘잘못함’으로 평가한 비율의 합이며, 긍정적 평가비율은 ‘잘함’과 ‘매우 잘함’으로 평가한 비율의 합이다. 5개 소항목에 대한 긍정적 평가 비율은 최소 11.05%에서 최고 13.9%이고 부정적 평가 비율은 최소 19.25%에서 최고 23.95%에 이르기까지의 분포를 보였다.

<표 6-1> 재정 분야

평가 항목	평점별 비율(%)					평점평균	표준편차
	매우 잘못함	잘못함	보통	잘함	매우 잘함		
발전기금 확보	14.2	24.4	35.0	19.2	7.2	2.81	1.12
재정건전성 제고	14.9	29.3	32.7	16.7	6.5	2.71	1.11
재정의 효율적 운영	17.3	30.6	28.5	17.8	5.8	2.64	1.13
교직원의 복지	18.7	25.4	33.9	16.0	6.1	2.65	1.13
교직원 직무역량 강화	14.2	24.3	33.7	21.1	6.7	2.82	1.12

1) 발전기금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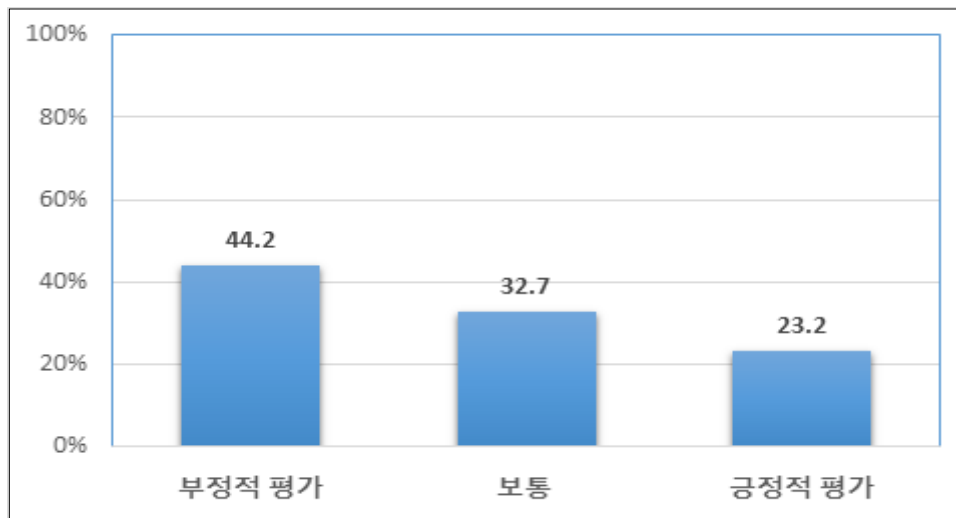
발전기금 확보에 대한 설문은 ‘발전기금 480억 확보’라는 공약을 문항으로 제시하여 평가하였다. 평점 평균은 2.81점으로 다른 소항목의 평균보다 높은 편이었다. 긍정적 평가(26.4%)보다 부정적 평가(38.6%)가 높았고, 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의 평점(2.51점)이 가장 낮게, 의약계열의 평점(3.11점)이 가장 높게 나왔다.



<그림 6-1> 발전기금 확보

2) 재정건전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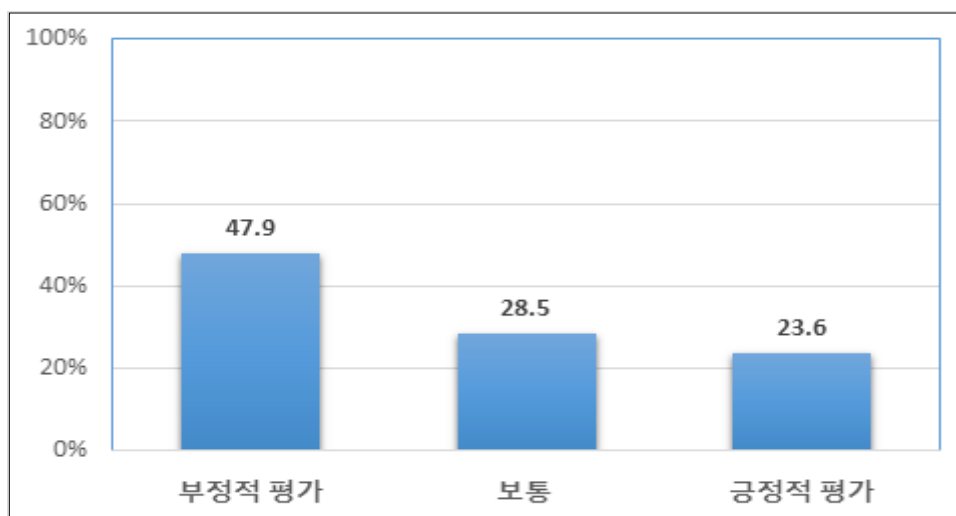
재정 건전성 제고에 대한 설문은 1)국책사업 대응 전담팀 신설, 2)기업 연구개발센터 유치, 3)학교기업 설립 및 운영 등의 공약 사항을 문항으로 제시하여 이루어졌다. 평균은 2.71점이었으며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거의 두 배 정도로 높게 나왔다. 계열별로는 인문계열의 평점(2.45점)이 가장 낮게, 의약계열의 평점(3.07점)이 가장 높게 나왔다.



<그림 6-2> 재정건전성 제고

3) 재정의 효율적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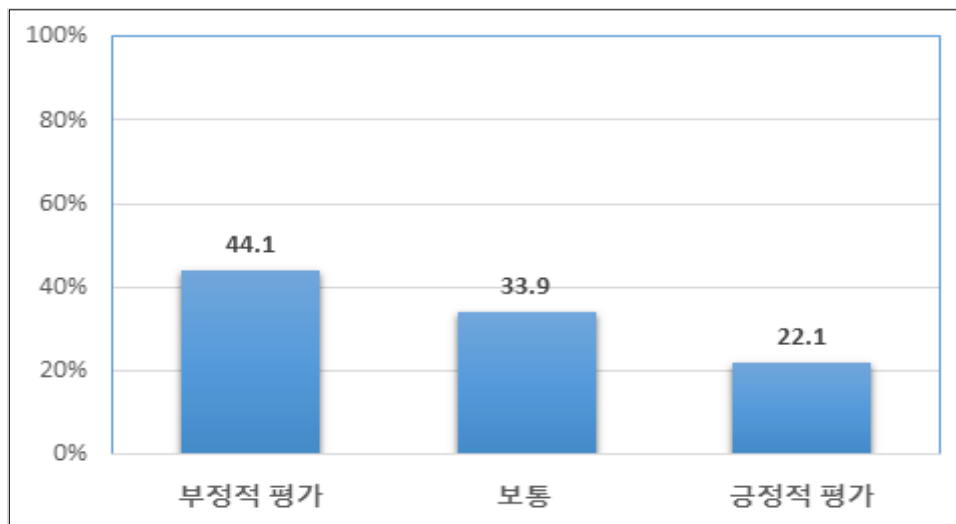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설문은 1)수입대체경비기관 활성화 및 경영 효율화, 2)교원 지적재산권 수익 창출 지원이라는 공약 사항을 제시하여 진행되었다. 평균은 2.64점으로 5개 소항목 중 가장 낮았다. 부정적 평가(47.9%)가 긍정적 평가(23.6%)보다 두 배 이상의 분포를 보였다. 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의 점수 (2.43점)가 가장 낮았고 의약계열(2.93점)이 가장 높았다.



<그림 6-2> 재정의 효율적 운영

4) 교직원의 복지

교직원의 복지 항목에 대한 설문은 1)여성교직원의 친환경 복무환경 구축(공약), 2)생애 맞춤형 가족복지제도 개선(공약), 3)건강한 직무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공약), 4)대학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한 학생복지 개선(공약), 5)교직원의 여가활동을 위한 친환경 웰빙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공약)이라는 5개의 공약사항을 제시하여 이루어졌다. 평균은 2.65점으로 낮은 편이었으며, 부정적 평가(44.1%)가 긍정적 평가(22.1%)보다 두 배 높은 분포를 보였다. 계열별로는 인문계열의 점수(2.33점)가 가장 낮았는데, 이는 재정분야의 다른 소항목 점수 중에서도 가장 낮은 것이었다. 의약계열은 가장 높은 점수(2.87점)를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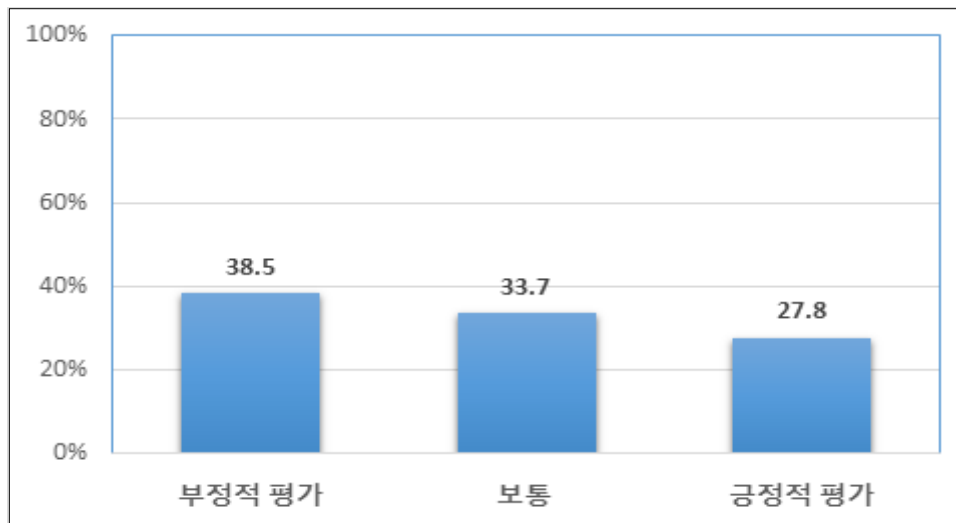


<그림 6-3> 교직원의 복지

5) 교직원 직무역량 강화

교직원 직무역량 강화 항목은 1)우수한 교직원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공약), 2)직업기초능력 함양 프로그램 확대 및 생애주기별 역량 관리 시스템 구축(공약), 3)교수 학습법 개발을 위한 지원 확대(공약), 4)이달의 교직원상 수여

및 우수사례집 발간(공약), 5)국내외 대학 파견 연수 프로그램 확대(공약) 등의 문항으로 설문되었다. 평균은 3.18점이었는데 이는 재정 분야의 소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이다. 이 문항도 부정적 평가(38.5%)가 긍정적 평가(27.8%)보다 높았다. 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의 점수(2.53점)가 가장 낮았고, 의약계열의 점수(3.18점)가 가장 높았다.



<그림 6-4> 교직원 직무역량 강화

제7장 조직 개편 및 네트워크 분야 평가

조직 개편 및 네트워크 분야에 대한 설문은 1)충남대 행정시스템 개선, 2)산하기관별 행정 시스템 개선, 3)인사 및 평가시스템의 개선, 4)지역과 중앙 네트워크의 강화의 4개 소항목으로 구성하여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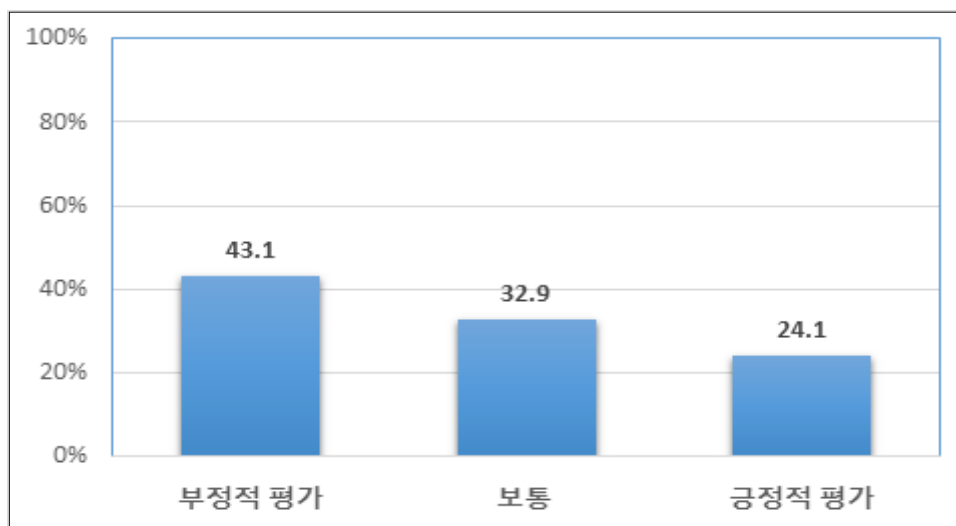
조직 개편 및 네트워크 분야에 대한 대항목 평균은 2.74점으로 전체 항목 평균인 2.79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소항목별로는 ‘산하 기관별 행정 시스템 개선’과 ‘지역과 중앙 네트워크의 강화’ 영역의 평균이 동일하게 2.83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충남대 행정 시스템 개선’ 영역의 평균이 2.73점, ‘인사 및 평가시스템의 개선’ 영역의 평균이 2.59점 순으로 나타나 모두 보통(3.00점)에 미치지 못하였다. 다만 ‘산하 기관별 행정 시스템 개선’과 ‘지역과 중앙 네트워크의 강화’ 영역의 평균은 전체 항목 평균과 대항목 평균보다는 약간 상회하였으며, ‘충남대 행정 시스템 개선’ 영역도 전체 항목 평균과 대항목 평균 보다는 낮았지만 근접하였다.

<표 7-1> 조직 개편 및 네트워크 분야

평가 항목	평점별 비율(%)					평점평균	표준편차
	매우 잘못함	잘못함	보통	잘함	매우 잘함		
충남대 행정 시스템 개편	15.8	27.3	32.9	16.4	7.7	2.73	1.14
산하 기관별 행정 시스템 개선	13.1	22.5	39.4	18.5	6.5	2.83	1.08
인사 및 평가시스템의 개선	20.6	26.9	32.4	13.3	6.8	2.59	1.15
지역과 중앙 네트워크의 강화	13.8	23.3	37.6	16.7	8.6	2.83	1.13

1) 충남대 행정 시스템 개편

충남대 행정 시스템 개편에 대한 설문은 1)대학 행정조직의 기능적 개편, 2)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 개편, 3)우수학생유치를 위한 입학전형제도 개선, 4)산학협력 체질강화를 위한 제도 및 행정절차 간소화, 5)효율적 재정 관리시스템 구축, 6)본부 조직 개편에 대한 홍보와 공론화 과정의 6개 문항을 제시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충남대 행정 시스템 개편에 대한 소항목 평균은 2.73점으로 대항목 평균 2.74점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으나 거의 근접한 모습을 보였다. 충남대 행정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43.1%)가 긍정적 평가(24.1%)를 상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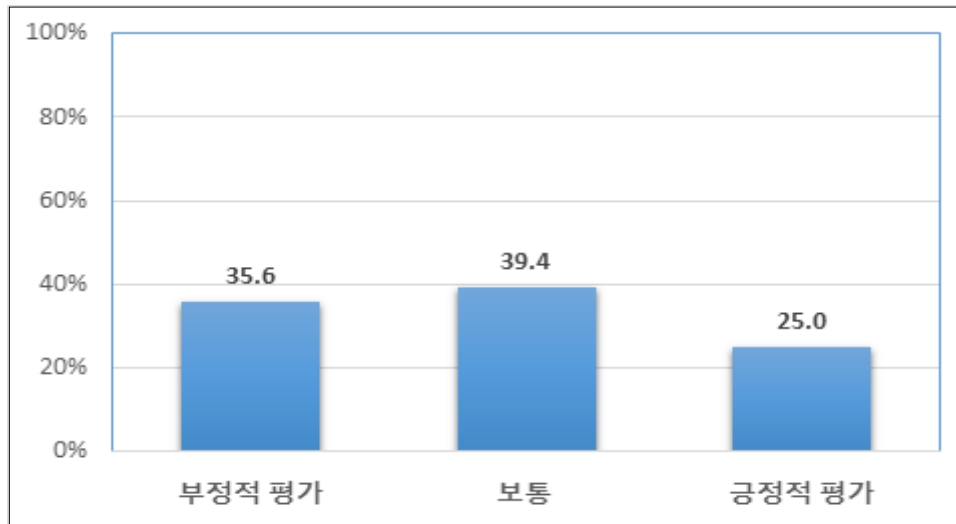


<그림 7-1> 충남대 행정 시스템 개편

2) 산하 기관별 행정 시스템 개선

산하 기관별 행정 시스템 개선에 대한 설문은 1)대학의 기획, 평가 및 성과 관리 기능의 역량 강화, 2)입학생에 대한 전담관리체계 구축, 3)국제취업 역량 강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4)학생 경력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활성화, 5)학생 친화형 생활 및 학업 상담 기능의 개선과 같이 5개 문항을 제시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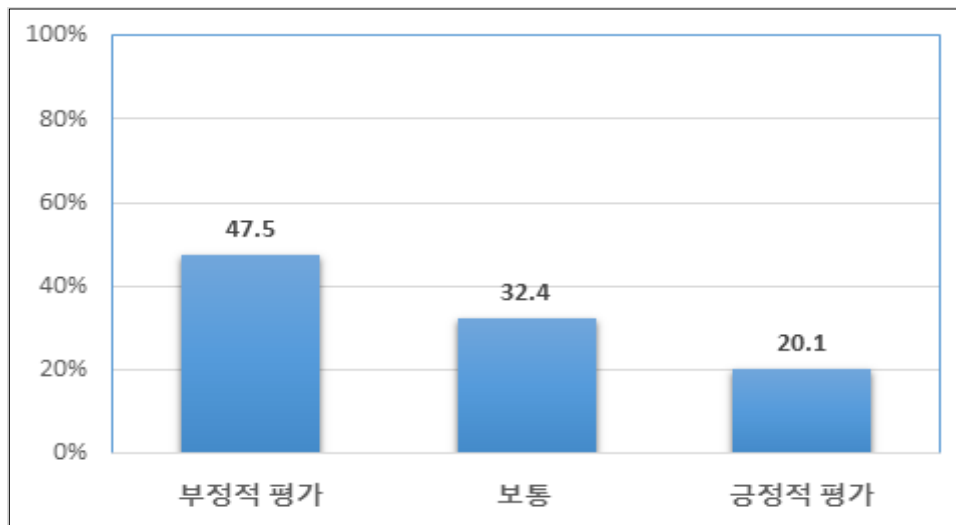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산하 기관별 행정 시스템 개선의 소항목 평균은 2.83점으로 대항목 평균 2.74점보다 높게 나왔다. 그러나 보통(3.00점)에 미치지 못하여, 산하 기관별 행정 시스템 개선에 대한 부정적 평가(35.6%)가 긍정적 평가(25.0%)를 상회하였다.



<그림 7-2> 산하 기관별 행정 시스템 개선

3) 인사 및 평가시스템의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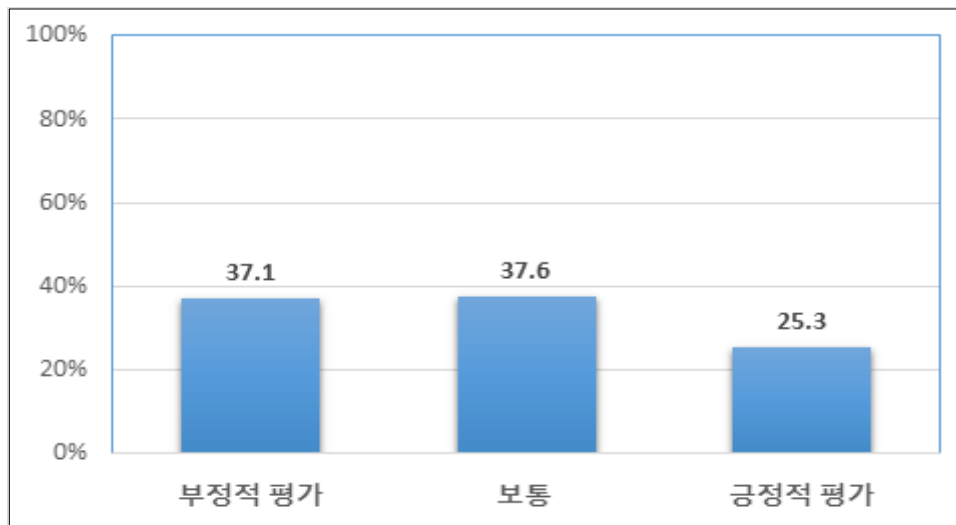
인사 및 평가시스템의 개선에 대한 설문은 1)공정한 교직원 업적 평가 시스템 구축, 2)본부 보직 선임의 적절성의 2개 문항을 제시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인사 및 평가시스템의 개선에 대한 소항목 평균은 2.59점으로 대항목 평균 2.74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인사 및 평가 시스템의 개선에 대한 부정적 평가(47.5%)가 긍정적 평가(20.1%)를 크게 상회하였다.



<그림 7-3> 인사 및 평가시스템의 개선

4) 지역과 중앙 네트워크의 강화

지역과 중앙 네트워크의 강화에 대한 설문은 1)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웰빙 컴플렉스 구축, 2)지역 공동체와 연계한 재능 기부 활성화, 3)충청인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활성화의 3개 문항을 제시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지역과 중앙 네트워크의 강화에 대한 소항목 평균은 2.83점으로 산하 기관별 행정 시스템 개선 항목과 함께 대항목 평균 2.74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보통(3.00점)에 미치지 못하여, 지역과 중앙 네트워크의 강화에 대한 부정적 평가(37.1%)가 긍정적 평가(25.3%)를 상회하였다.



<그림 7-4> 지역과 중앙 네트워크의 강화

조직개편 및 네트워크 항목의 대항목 평균(2.74점)이 전체 항목 평균(2.79점) 보다 낮았음에도 구성 소항목 4개 중 2개 항목(산하 기관별 행정 시스템 개선과 지역과 중앙 네트워크의 강화)은 2.83점으로 전체 항목 평균 보다 높았다. 대항목 평균을 전체 항목 평균 보다 낮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은 인사 및 평가 시스템의 개선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소항목의 평균이 전체 항목 평균 보다 높거나 그에 거의 근접한 점수를 보인 반면에 인사 및 평가 시스템의 개선이 낮은 점수를 나타낸 것은 인사 및 평가 시스템에 대한 교수님들의 부정적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수님들의 생각을 반영하여 공정한 교직원 업적 평가 시스템이 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교수님들의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인사 및 평가 시스템을 제외한 다른 소항목 평균에서는 전체 항목 평균을 상회하거나 이에 근접한 점수가 나왔지만 여전히 평균(3.00점)에 미치지 못하여, 교수님들이 이들 소항목의 내용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가 나온 것은 학내 조직이나 행정 시스템 개선의 한계를 알고 일부 걱정선에서 개선가능성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며, 여전히 비효율성이나 매너리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립대학이라는 한계를 인정한다 해도 효율성 제고나 매너리즘 타파를 위한 보다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8장 리더십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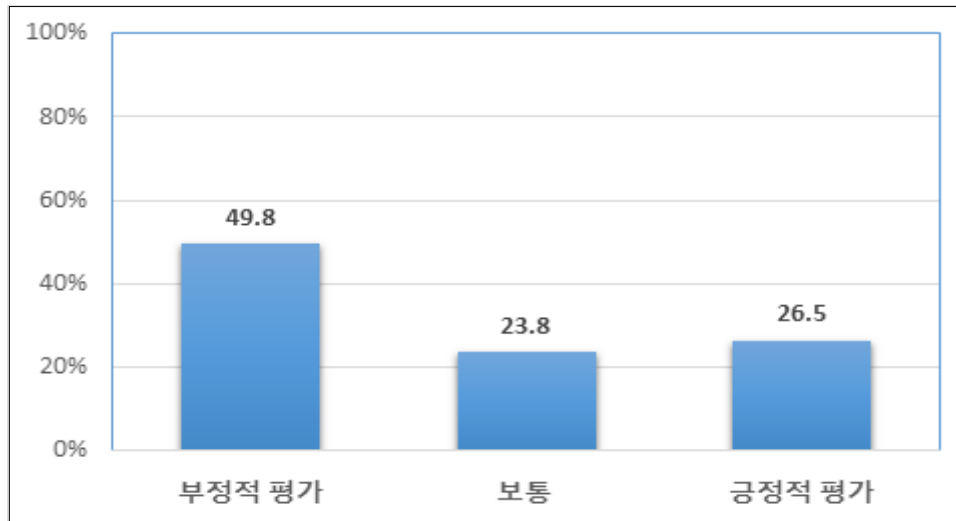
리더십 분야에 대한 평가 설문항목은 1)대학경영 및 최고경영자로서의 직무수행, 2)대학의 민주적 시스템구축 및 경영 총 2개의 소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리더십분야에 대한 설문의 전체평균점수는 2.65점이며, 이는 전체 설문분야 6분야 중에서 연구 분야에 대한 평가점수(2.58점) 다음으로 낮은 평가이다. 리더십 분야의 표준편차는 1.23으로 전체 6개 분야 중 제일 편차가 컸으며, 2개의 소항목의 표준편차 모두 1.25이상이었다. 소항목 중 “대학경영 및 최고경영자로서의 직무수행”에 전체평균(2.79점)보다 낮은 2.62점이었으며, “대학의 민주적 시스템 구축 및 경영” 부분에서도 2.68점이었다. 소항목별로 평가결과를 간략하게 요약 소개하면 <표 8-1>과 같다.

<표 8-1> 리더십 분야

평가 항목	평점별 비율(%)					평점평균	표준편차
	매우 잘못함	잘못함	보통	잘함	매우 잘함		
대학경영 및 최고경영자로서의 직무수행	25.1	24.7	23.8	16.1	10.4	2.62	1.30
대학의 민주적 시스템 구축 및 경영	21.6	25.7	25.2	18.4	9.1	2.68	1.25

1) 대학경영 및 최고경영자로서의 직무수행

“대학경영 및 최고경영자로서의 직무수행”에 대한 설문항목은 1)미래지향적 비전과 발전전략제시, 2)학내현안에 대한 총장의 주도적 대처능력, 3)단과대학 특성에 맞는 자율경영체제 강화, 4)전략적인 대학평가 지표관리의 집중적인 관리를 통한 국내 Top 10 대학 진입 등의 4개 문항을 제시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아래의 3문항은 지난 선거에서의 총장공약사항이었다. 이 항목에서 중간평가점수의 평균은 2.62점이었으며 표준편차는 1.30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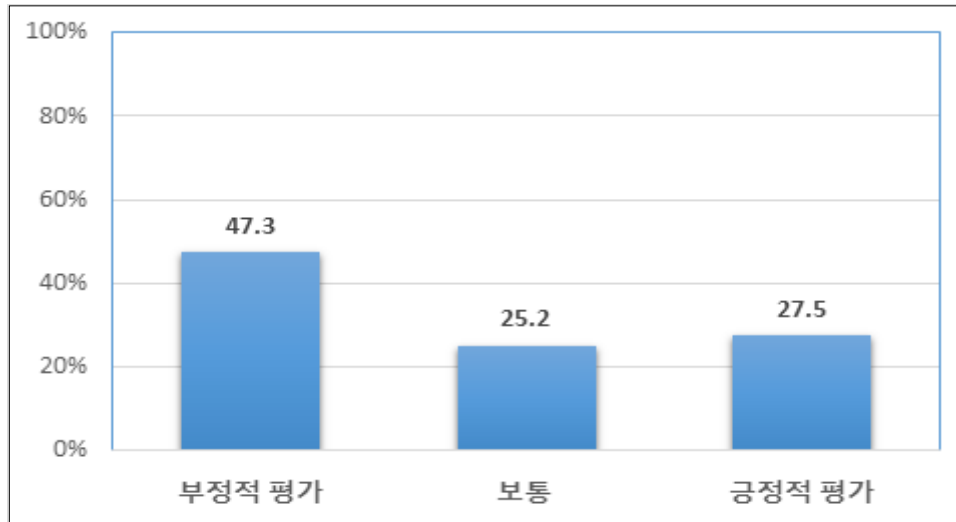


<그림 8-1> 대학경영 및 최고경영자로서의 직무수행

2) 대학의 민주적 시스템 구축 및 경영

“대학의 민주적 시스템 구축 및 경영”에 대한 설문항목은 1)CNU포럼 및 연 2회 이상의 단대별 의견수렴 정례화, 2)대학신문방송의 혁신을 통한 스마트 소통 문화 구현, 3)정책 제안 아이디어 활성화를 위한 포상제 실시, 4)대학본부/교수회 간담회 활성화 및 중간평가 의무화, 5)소통과 복지를 위한 전문 위원회 신설, 6)공유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및 프로그램 활성화, 7)평가기획팀 활성화 및 공약이행 점검 등 7가지 문항으로 제시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문항모두 지난 선거에서의 총장공약사항이었다. 이 항목에서 중간평가 점수의 평

균은 2.68점이었으며 표준편차는 1.25이었다. 이 세부항목은 중간평가 전체평균 보다는 낮지만 리더십 부분에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소항목이다.



<그림 8-2> 대학의 민주적 시스템 구축 및 경영

리더십 분야에 대한 평가는 2.65점으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으며, 전체 대항목 중에서 연구 분야 항목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표준 편차는 1.23로 전체 6개의 대항목 중에서 가장 편차가 컸으며, 리더십 항목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이 계열별로 차이를 보여주었다. 특히 각 소항목에 대한 표준편차가 모두 1.25를 넘어 각 소항목에 대한 의견 역시 계열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제9장 개방형 질문 응답 내용

아래 내용은 중간평가 설문지의 6개 대항목별로 첨부한 개방형 질문에 대한 자유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6개 대항목 외에 마지막으로 ‘기타 의견’을 적도록 요구했는데, 이에 관한 자유응답도 첨부하였다.

이 응답들은 다소 주관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이지만, 정책 및 업무수행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해법 또는 개선책을 제시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소중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1) 교육 분야

- 전공교육 내실화는 학점의 증가를 동반해야함.
- 취업경쟁력강화의 일환으로 창업,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과연 성공적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외연수프로그램의 경우, 경쟁력 있는 학교와의 MOU 등을 통해 제대로 된 교육프로그램의 참여가 필요할듯하고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취업이 목적이라면 관련회사와의 MOU를 통해 취업박람회, 면접박람회 등이 더 좋을 듯싶습니다.
-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교육체계의 능동적인 변화가 요구됨. 따라서 과감한 교육체계(전공, 학과)개편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지역거점 글로벌 대학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필요함.
- 본 분야에 대한 총장의 의지는 분명하지만, 추진방향 및 방법에 대한 충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 힘들.
- 대학의 자율성과 의견 수렴 과정이 거의 없다.
- 교육분야에서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부족함. 대학본부의 일방적 결정에 한계가 있음.
- 동일단과대학내 타학과 전공과목 수강 시 일선으로 구분되지 않고 전공으로 부여가 되면 학문단위를 넘나드는 다학제간 교육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 아직 실질적인 실적들이 미소함.
-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느껴짐.
- 특정사업단 요구들에 따라 교육프로그램, 과목(교양) 개설들이 산발적 운영, ACE 사업으로 학문 정체성이 와해됨.
- 내실화하는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그 사회구성원으로서 경쟁력과 역량을 인정받을 때, 내실화는 판단할 수 있음. 현재 의학과 랭킹, 대외 인지도로는 우리 끼리만의 외침으로 그침. 학생들의 외국교류 시 우리 CNU보다는 최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대학과 교류 및 연수 등을 제공하기 바람.
- 학생정원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립대와 서울의 유명 사립대의 경우 과목 폐강 기준이 10명이다. 폐강기준을 15명에서 10명으로 환원하였으면 합니다.
- 교양대학 설립과 관련된 성공적 예를 찾아보기 어려움에도 추진하는 배경이 있는지 모르겠음.
- 전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수강해야 할 전공과목의 시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함.
- 전임교수 교양과목 강화는 제고해야 됨.
- Cyber 강의가 전형적인 거저먹기 과목들의 요람이 되지 않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 정원 하향 설정, 실제 수업시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 web 교통량 측정할 필요가 있어. 특히 인기 있는 과목은 거의 예외 없이 부실한 과목이라는 문제의식 가져야.
- 기초교육원장을 교체해야(인문대 성명서 후속조치).
- 전공교육을 심도 있게 하는 게 대학본연의 모습과 기능입니다. 현재 복전이나 부전공제도는 전공교육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단수전공과 복/부전공제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융복합학제간 학문은 공염불입니다. 학생들이 전공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쉬운 과목만 들어도 졸업가능) 타전공을 듣는다고 하여 갑자기 창의적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공강화+기타복/부전공의 체제가 되어야 합니다.
- 경직된 1.5시간제도->3시간 연장 가능한 수업 또는 3시간 연장 가능

한 과목제도 시행필요. 학과 간 임의적인 과목개설학과 및 학점분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기존 교양과목의 탈락 필요—신규진입 통로 실질적 폐쇄를 경험한 이후 다시 신청 안 하고 있음.

- 대학을 취업학원화 할 것이 아니라 교양, 지성, 인성을 양육하는 장으로 삼아야.
 - 충남대는 충남도와 단절한 채 대전시로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교육의 내실화도 취업경쟁력도 실추됨. 지방자치시대 적응에 실패한 결과임.
 - 우리대학이 교육을 하는 기관이 맞는지? 예컨대, 줄속행정(공문당일발송 등), 연구조교 없애고(실습은 어떻게 하는 가 등), 담당직원의 교체가 매우 빨라 매번 실수.
 - 인문대 많은 교양과목이 10년 이상 된 오래 된 과목. 과목들의 중복성 문제가 심각(예, 사학과 과목들), 대대적 내용 개편 시급.
 - 교내 관련 구성원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청취할 필요가 있음.
 - 표면적인 성과는 내실화 또는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내지 못함. 기본과 원리원칙에 충실한 정책을 펼쳐 주었으면 함.
 - 실제 학과 단위에서 필요한 전공교육 내실화 및 취업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성과평가” 지표 향상을 위한 보여주기 식 또는 단순히 평가지표 향상을 위한 교육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중장기적으로 전반적인 전공 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함.
 - 교육, 연구, 인프라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일방적인 행정을 수행하여 구성원과의 소통 및 의사 반영과정 결과가 전혀 없음. 교직원의 실질적 업무수행에 대한 이해 및 효율적 운영방안 없음. 내실 있는 사업보다 전시행정이 많아 보임.
 - 연구중심의 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인문학 관련 교양과목 외에도 자연과학 분야의 교양과목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전공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접근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교육부의 지침이나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일괄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는 게 교권의 자율성을 너무 침해하는 것 같음.
- (예) 학과에서 한 학기 개설교과목을 51학점 제한을 두다보니, 전임강

사비율은 (특히)인문계분야에서 상승할 수 있겠지만, 자연과학분야에서 각 교수님의 2~3과목은 폐강(개설하지 못함), 어려운 전공과목을 단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고 생각됨.

- 이공계열 기초학문(교육, 전공기초)내실화 증대 필요 제안함(수리, 물리, 화학, 지구환경 ... 자연과학기초교양).
- 교양강좌의 무분별한 축소 시도 및 실행은 부적절함.
- 교양교육에 인문학도 중요하지만 예술분야 의무화추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람.
- 학교의 기초 교육 강화가 보여주기 식으로 이루어지며, 실제 학생의 역량은 강화하도록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가 필요함.
- 가장 중요한 공통기초 교과(기초 글쓰기, 글로벌 잉글리시)의 효율적인 추진이 전무함.
- 학문의 성격에 따라 융복합을 통하여 교육이 강화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공과목 같은 경우, 폐강 기준의 완화로 학생들이 듣고자 하는 과목을 좀 더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 미래설계상담제도는 교수 업무부담 가중되고 상담은 부실할 수밖에 없어 폐지되어야 함.
- 머릿수를 늘리는 것이 국제화가 아님. 교육여건이나 내용이 향상 되지 못함.
- 복수전공 이수 활성화.
- 전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현 분반기준(70명)의 하향조정이 필요함.
- 비교과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나 체계적 운영이 되지 않고 학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가 부족함(시스템의 문제).
- 교양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평가제도 마련 필요(공정한 평가를 위한).
- 교양교육 강화로 전공교육이 약화되는 것 같아 전문지식 습득이 어렵다. 인문학 교육도 중요하지만 더욱 전공지식을 갖추어 내실 있는 인재 양성 필요. 대학이 교양교육을 위해 진학한다면 과연 4년 나와서 허송세월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 실제 out-put에 대한 평가가 필요.

- 교육 분야의 변화된 정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임.
-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교육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 TF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임.
- 전공교육내실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수전공 이수학점을 늘릴(2015 이전으로 원상복귀)필요가 있다. 현재 39학점은 전공학업을 이수했다고 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학위증남발이며 교육수준의 심각한 질적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여타거점국립대학들과 비교해도 최저수준인데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 공통기초 교과목에 글쓰기 이외에 말하기(스피치) 과목 개설이 시급하다. 주요 대학들은 이미 스피치 과목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2) 연구 분야

-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이 필요함 위의 공약중의 어느 하나 만이라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천이 이루어진다면 큰 업적일 것임. 나눠 먹기 식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우리대학에 필요하지 않음.
- 재정적 어려움이나, 충남대의 연구경쟁력이 하락하고 있고 현실에 대해, 일 정부분 총장 및 보직자의 책임이 있음.
- BASF와의 연계와 같은 연구 활성화를 더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 논문게재 장려금 확대는 바람직하나 예산 부족으로 실질 수령액은 감소함. 예산 우선 배정이 필요함.
- 연구분야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됨.
- 교내 과제, CNU과제의 규모에 맞지 않는 과도한 단독사사강요는 논문을 급조해내도록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 실제 외부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실적에 방해되는 등 비현실적 운영.
- 산학협력단의 새로운 방침들도 연구활성화와 반대로 진행.
- 학생인력양성사업들의 오버헤드 간접비부분(국가과제에 책정 되어 있지 않은)을 사업 책임자들에게 전가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등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는 과제를 수주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

해가 되는 방향의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매우 우려됩니다.

- 거창한 계획 및 추진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계획과 약속한 부분 지켜지도록 제발 노력 필요. 새로운 계획, 사업 만들지 말고 기존 약속 및 계획을 우선 지키고 지원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임.
- 교수 연구 인센티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돈으로 보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연구할 시간을 주었으면 함.
- 대학원 논문 연구과목(3학점) 부활 및 논문연구시수를 책임시수에 포함하였으면 합니다.
- 연구년 정원과 해외파견정원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적어도 6년 이상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였으면 자격이 되는 교원 모두 재충전 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원증가를 바람.
- 논문 장려금의 축소 등은 연구사기를 저하시킴.
- 학문분야의 균형 발전에 대한 논의 부재.
- 연구비 삭감으로 인해 연구 역량이나 의욕이 감소되고 있음.
- 교수 연구비 인센티브 증액 필요.
- 보직교수들이 국제 연구계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는 자들이라야 하는데, 최하위 “학자 아닌” 교수들 아닌가 한다. 국제적 ranking이 몇 등이나 될까? 처장님, 학장님들께서.
- 충남대 우수분야 선정 후 집중 육성해야.
- 자체 연구비 확대.
- 제한된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 이해는 갑니다만, 타 대학처럼 일 정시간 복무하면 일정시간 안식년을 갖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 교수가 차분히 연구에 매진하도록 잡을 줄이고 양적증가(연구실적)에 매달리지 말 것.
- 타 대학에 비해 우수논문지원이 형편없다는 생각.
- 연구소를 지원하기 보다는 폐쇄하는 것에 골몰하지 않나 의구심이 듭.
- 대학의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 상실. 그에 따른 연구 경쟁력과 글로벌 역량은 기대하기 불가능함.
- 자체연구에서 교수 연구 수당이 폐지된 대신 자체 연구 지원으로 출판된 논문에도 논문 게재 장려금 지급 필요!

- 연구를 활성화하는 흥내만 내고, 나누어먹기 식 연구비 분배 등.
- 제발 교육부 사업 수주에 초점을 둔 근시안적인 지원, 유인책을 사용하지 마시고, 교수 개개인의 연구역량(사업수주를 위한 세일즈 역량이 아닌) 강화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산단은 교수의 과제지원을 위한 기관인지 관리감독기관인지 모를 정도로 서비스 역량이 떨어집니다. 산단을 차라리 외주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입찰을 통해 산단 대행 기관을 선정하면 최소한 서비스라도 잘 받을 것 같습니다.
- 논문 인센티브 유지하길 바람.
- 논문게재장려금의 개편이 먼저 선행되어야함. 자연계와 인문계를 나누는 것은 좋은 방안이나 자연계의 경우, SCI/E에, 인문계의 경우SSCI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다른 지표에 대한 인센티브를 낮추는 것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됨.
- 산단 회계의 간접비는 기여자 우선으로 적절히 배분 되어야 함에도 기여자들은 항상 부족한 지원을 받는 것으로 느끼고 있음. 개선이 필요. 간접비를 대학의 균형발전에 쓰이는 것은 찬성하나 비기여자에게 지급되는 사항은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연구소의 업무범위를 확대할 필요성—행정요원 지원 등
- 대학원 : 학위논문 청구 관련 규정에서 석사학위 후보자에게 영어점수만을 강화시키고, 학과 특성상 필요한 학술지 논문 게재(학과 내부 규정에서 다름) 등에 관한 것을 일괄적으로 폐지한 것은 잘못되었음.
- 대학, 학과의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 기 공고된 논문 게재 장려금을 100% 지급하지 않음.
- 교수 연구 인센티브제도의 불안정성(연구비 지급이 불안정함) 2017년 신임교수 정착연구비는 아직도 미지급 상태임—2017년 당시 신임교수에게 지급을 공지한 바 있음.
- 교수의 연구향상을 위한 지원이 매우 미흡하며, 학문적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
-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의 연구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임용 후 7년 이후에 갈 수 있는 연구년을 3~5년으로 줄일 필요가 있음.
- 일본, 미국, 유럽 등과의 교류 필요! 몽골, 캄보디아 ...?

- 교수정원 배정이 무원칙하고 본부 편의적임.
- 우수한 연구논문 게재를 위한 충분한 금전적보상이 필요(JCR기준으로 하면 이공계에 지원이 편중될 우려).
- CNU연구비 원상복귀(300만원->600만원)
- 교수들이 연구에 집중하기보다 기타사업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구조.
- 학교 차원에서 교수 개인들의 연구력향상을 위한 지원은 느끼기 어려움.
-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예산집행 상 어려움이 많음. 신청서만 5번을 걸쳐 제출했음. 신청서에 재료비, 견적서까지 제출은 무리라고 생각됨.
- 더 나빠지거나 유지하기에 급급함.
- 융합학문 및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신 분야의 교육 및 연구를 주도할 수 있는 교수의 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함.
- 교수 연구 인센티브가 매우 저조하다고 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논문게재장려금을 확대 적용 할 필요 있음.

3) 주요 추진 사업

- 대전·세종·충청 연계 캠퍼스 광역화는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고 중앙도서관 증축도 진행되고 있다고 봄.
- 글로벌화와 타 대학과의 네트워킹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형식적이지 않은 작은 실천적 걸음이 필요하다고 판단 됨.
- 중앙 도서관 공사담장을 아름답게 꾸며 주세요. 학생들이 술을 마시는 공간으로 전락한 막동을 정화해주세요.
- 총장의 독자적 적극적 활동이 미진함. 이미 있는 것, 다른 구성원들의 실적에 기대고 있는 실정. 총장의 실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 실제 느껴지는 부분 없음.
- 중앙도서관 증축은 향후 충남대학교의 발전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 교육부 사업인 CORE 사업 이외의 이 분야 사업의 진척 상황에 관해 아는 바 없어. 뭔가 진행되고 있긴 한가?

- RC 참여 미진하면 재검토 필요.
- RC program을 왜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음.
- RC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네요.
- 레지던스 칼리지 같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이상한 사업을 구성원 동의 없이 벌이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 학문성장을 위한 지원은 나날이 줄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 어떤 진취적 움직임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RC는 부족하나마 눈에 뜨임.
- 이공계, 상대, 의약대 중심의 발전관을 갖고 있지 않나?(인문사회에 대한 학교의 지원은 무엇인가?) 유학생 위한 영어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국가정책대학원의 세종 이전 등과 관련된 어떤 예산, 인적지원 없이, 경쟁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 밀어붙이기 하던 기억이 생생함- 개선돼야
- 그간 구호만 요란했지 실제적인 성과와 네트워크 및 인프라구축은 성과가 전무함.
- 기숙형 교양교육사업의 내실 운영이 미흡하여 이 사업 추진의 근본적인 문제의식 및 사업 추진 철회가 고려되어야 함을 제언함.
- RC 관련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되지 않음. RC에 예산을 많이 책정하여 소수의 학생들을 위한 program을 실시하는 이유 알기 어려움.
- 밖으로 보여주기가 아닌 내실을 기하는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함.
- 대학 및 일반대학원은 대전 main 캠퍼스에 집중하여 역량을 강화시키고 필요시 정책대학원을 세종 캠퍼스에 도입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은 땅 장사 하는 곳이 아닙니다. 캠퍼스가 학생들의 접근성 및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에 설립된다면 캠퍼스 및 전공이 죽습니다. 제발 업적에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 무리한 사업추진보다는 구성원과의 협의 필요.
- 중앙도서관 신축은 매우 긍정적인 성과임
- 기초학문분야 또는 인문학 관련 교양과목을 보면 '인문학'을 너무 강조하고, 상대적으로 '자연과학' 분야는 소홀한 부분이 있음. 영어나 글쓰기를 강조하면서 수학 또는 과학과목의 교양 필수 이수도 필요함.
- 내포신도시대학 캠퍼스 조성사업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원론적 접근에 한정됨, 구체적 실행 부족.
- 기숙형 대학(RC)의 운영 파행. 우리학교에 적합한 RC사업 모색 필요.
RC의 재원을 학생생활관 예산(학생들 관비)으로 운영. 이는 생활관 관생들의 관비를 생활관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쓰는 것이므로 매우 부적절하고 행정상 큰 문제로 야기될 소지가 있음.
- 1. 아마도 충남대는 교수회관 및 게스트하우스가 없는 유일한 거점국립대학인 것 같음.
2. 교수에 대한 복지 혜택이 거의 없음. 학기 중 점심시간에 교직원식당에서 학생들과 일반인으로 가득한 상황에서 혼잡하게 식사하는 현실임
- 학교 구성원의 필요를 반영한 사업추진 필요.
- 글로컬 캠퍼스에 해당하는 사업의 진행은 본부차원에서 추진한 것은 느낄 수 없음. 있었으면 특정 단과 대학에 치우쳐 있을 것 같음.
- RC프로그램 참여자 극히 저조.
- 소통부재.
- 인문, 사회, 예체능, 기초과학에 대한 진흥 정책이 전무한 것으로 보임 (과거대로 유지?).
- RC제도 자체가 우리학교의 여건을 고려할 때 재검토 되어야 함.

4) 재정 분야

- 단과대학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재정지원에 대한 적극성을 발휘해주시기 바람.
- 한정된 예산과 대학의 자체 역량으로 재정분야의 괄목할 만한 변화는 기대하지 않는다.
- 각 교수 및 직원집단도 본부를 탓하지 말고 스스로를 바라보고 전력으로 재정적 인프라 및 수주에 기여가 필요함. 확보방안의 구체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수입대체 경비기관의 공공요금부담률 단계적인상은 해당기관의 활성화를 저해시킬 요인이 될 수 있음.

- 교수학습법 개발 이후 적용사례도 발굴이 필요 합니다.
- 학과의 조교들을 교수의 비서에서 탈피하여 학교, 학생을 위한 활동으로 방향 전환 필요.
- 재정 부족의 원인, 이유 구성원에게 설명필요. 재정확보를 위한 구성원에게 독려 이외에 총장선거에서 본인이 약속한 노력과 결과 제시 필요.
- 교직원복지: 교직원식당(교직원에게 우선 배려, 학생 사용 시 시간제한)
- 교직원 주차 공간(교직원 우선 배려) 주차 질서, 주차 공간에 대한 개선 필요.
- 교직원 복지향상과 직무 역량강화에 관한 홍보 및 소개가 부족함.
- 교수 복지 예산(연구비등) 증액 필요.
- 국내외 파견 여건 악화.
- 직원들의 복지부동, 무례, 비전문성을 반드시 개선해야.
- 교육대학원 연구비 보조금 환수와 관련, 환수금이 대학에 남는다고 들었는데, 왜 재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하나?
- 총장 포함, 대학본부, 고위보직자들의 해외여행경비 절감 방안 등이 있나?
- 교직원의 복지는 거꾸로 가고 있고, 교직원 직무역량은 갈수록 퇴보하고 있음.
- 사례집 발간. 홍보대사(학생들) 운영, 소식지 발간 같이 별 효용 없이 발행되는 출판물 및 홍보비용 삭감 필요!
- 재정을 쉽게 확보할 수 없음은 사실이다. 그런데 발전기금이나 교직원 급여증진 등의 공약을 만들었으면, 실천의지가 필요함.
- 재정을 쉽게 확보할 수 없음은 사실이다. 그런데 발전기금이나 교직원 급여증진 등의 공약을 만들었으면, 실천의지가 필요함.
- 파견 연수 프로그램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재정지원 축소가 주 원인임).
- 제발 교원들을 영입(사업 수주)에 내몰지 말아주세요. 기초 학문 연구가 하고 싶습니다.
- 국외파견기간동안 교원평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함. (예) 평가를 받지 못하는 교육, 연구분야에서 지난 3년 동안 평균값을 적용.

- 발전기금 확보에 대한 무념무상, 발전기금 기부자에 대한 적절한 대우 부족.
- 교직원의 여가활동을 위한 지원과 시설확보가 전무함.
- 발전기금 모금을 효율적으로 하여야 하며, 학교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예산 내역의 공개.
- 수입대체 경비 출연 인하(30%→20%).
- 학교기업의 추진이 정체되어 있으며, 수입대체 경비기관의 운영이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
- 여가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필요.
- 재정악화로 학과 예산이 급격히 줄고 매년 운영하던 취업, 졸업생과 네트워크 행사 축소, 패션해외시장 조사도 2018년 폐지 됨. 재정운영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됨.
- 교직원의 복지 관련 또는 교직원 직무역량강화 관련인지 잘 모르겠으나 우리대학의 교원 연구년 제도는 다른 대학에 비하여 형편없다고 생각됨. 제도개선이 필요함. 규정에 따른 내용이라고는 하나 규정이 잘못되었다면 규정을 개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규제만 하지 말고 자율경쟁이 중요. 이미 정해놓은 것 중 고르라는 것은 창의를 없다.
- 발전기금 확보실적이 너무 저조함(직전 총장과 비교 필요).
- 학교기업의 적법한 운영정책이 미흡(대덕바이오등).

5) 조직 개편 및 네트워크 분야

- 대다수의 교수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억지로 밀어붙인 총장선거제도 하에서 총장선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자가 본부 보직에 선임되는 자체가 불공정한 총장선거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는 본부 보직 선임자체가 부적절하고 비도덕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 행정조직의 효율화 및 서비스 마인드 재고가 필요함. 행정인력의 정신적 자긍심 확보 및 전문화가 필요함. 탁상식(제도만 따르는)행정에서 벗어나야 함.

-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기 힘들.
- 충남대 행정시스템은 타 사학기관과 비교하여 매우 낙후되고 비효율적임. 국가공무원 조직의 습성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이 요구됨.
- 학교 시설과 공간에 대한 형평성 있는 합리적 배분과 활용의 문제가 심각함. 특히 학교 시설과 공간에 대한 관리가 문제가 있어 활용상의 효율성이 떨어짐.
- Paperless-campus 구현. 산단과 교수, 학과와 단과대학 간의 교류를 자동화하여 문서는 온라인으로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 구현.
- 조직운영의 전문성을 이해할 수 없음. 최소한 보직자 전문성 설명 필요. 통상 2년의 기간을 초과해서, 4년의 기간으로 직을 수행할 보직자의 전문성을 구성원에게 설명 필요.
- 행정시스템 개선이 절실함.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서비스의 향상이 필요함.
- 계절학기 수업을 3주로 줄인 것은 부실학습을 장려하는 것으로서 폐지, 복원되어야하고, 일부교수가 수십 시간(주당)강의를 하는(따라서 어느 정도 강의도 제대로 안하는)사례는 없어져야 해.
- 수백 명을 한 반에서 가르치는 사이버수업의 폐해 없애야.
- 전반적으로 보직자들이 엉터리 삼류교수들이라서 모든 분야의 질 저하가 초래돼.
- 공대중심 보직인선은 문제가 심각하고, 2년 이상 연임은 학교 발전에 도움이 안 됨.
- 보직자 임명은 회전식 인사—낙제점.
- 보직자를 친분이나 연고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임명하십시오.
- 전공 관련이나 관심 있는 교수들 적절한 곳에 보직할 수 있도록 인사하시길. 보직공모제, 학내각종위원회 공모제가 되면 어떨까요(책임의식).
- (본부 보직)대폭 교체 필요.
- 교직원업적평가에 대해 고심 해주기를 바란다.
- 충남대 교직원인사는 총장선거에 따른 철저한 논공행상으로 이루어지고 참여와 통제중심의 행정시스템은 전혀 작동 하지 않고 낙후되어 있음.

- 학교전산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엉망임! 사이버캠퍼스, 기초교양교육원 홈페이지, 산학포털 등 웹표준을 따르지 않고 사용자편의성이 매우 떨어짐!
- 전혀 조직을 잘 운영하고 있지 못함. 역대 총장 중 이 부분은 매우 저조함.
- 산단 서비스 향상 필요.
- 본부보직선임에서 인적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함. 세간에서는 ‘회전문인사’를 지양하라고 주문하니 ‘도로문’ 인사라는 평가가 있음.
- ‘충청인’, ‘창조경제’ 등 너무 정치 또는 지역주민만을 강조한 것이 아닐까 생각됨.
- 총장의 지인위주 보직선임, 인재풀 빈약.
- 능력과 전문성보다 총장의 선호도에 따라 보직자가 임명됨. 많은 교수들이 보직을 고사하는 이유는 총장의 부덕과 리더십부재에 있음을 총장은 자각할 필요가 있음.
- 학내에서 심각한 행위 등으로 경고를 받는 등의 교수를 보직 임명하는 행위는 각성할 필요가 있음.
- 입학생 or 재학생의 휴학, 복학, 자퇴 등의 관리가 개인적(학생)으로 하기 때문에 학과와 교류가 학생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행정실장 자리를 없애야 함.
- 우수학생 유치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
- 별로 나아진 게 없다.
- 행정직원시스템에 대한 총장의 장악력이 매우 취약. 신상필벌의 감사도 이루어지지 않음(회계부정 등 감독부재). 교수의 느슨한 복무기강에 대해서도 전혀 무관심으로 일관(일주일에 하루이틀정도 나와도 괜찮은가?)
- 교직원들도 서비스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교직원들이 너무 불친절합니다.

6) 리더십

- 대다수 교수들의 민의에 반한 비민주적이고 편법으로 탄생한 현 총장은 정통성도 없고 단지 적폐의 대상이다. 교수들과의 소통의 의지도 없고 반영된 선거제도 하에서 새로운 총장선출만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 단과대의 이슈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비전 제시보다 자구책을 구하라는 답만 들었다면 리더십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 단대별 의견수렴을 현실화했으면 좋겠음.
- 내실을 강화하는 정책과 그의 추진은 나름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미래지향적 발전전략과 전술 제시는 국립대학의 한계성 때문에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됨. 각 구성원도 협심하여 내실강화로 대학의 국내외 경쟁력이 재고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지방대학의 경쟁력 하락이 총장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충남대의 총장으로서 보다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기를 바람.
- 세부사항의 실적은 확인하기도 어렵고 총장의 역량도 아니다. 총장의 특징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항목(예: 리더십)에 가중치가 있어야 한다.
- 비전이 불명확함 투명성도 없음.
- 총체적 무능, 무사안일 총장체제입니다.
- 열심히, 성실히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 대학운영 및 대학의 지향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음. 대학운영의 방향 및 색깔이 필요하나, 어떤 정체성으로 대학의 발전을 꾀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음.
- 본부와 단과대학, 보직자와 평교수의 소통이 더 적극적으로 요구됨.
- 회전문식 인사시스템 제고.
- 교육대학원 강사료 및 연구비지급과 반환요청을 둘러싼 잡음은 총장과 고위보직자들의 리더십 없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슬픈 사건임. 못한 놈들이야.
-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총장 자리 유지에만 급급한 인상을 줌
- 소속교수 200인 이상이 교육대학원 강의보수 환수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총장과 부총장, 교무처장, 교육대학원장들이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 딱함. 전원보직 사퇴를 하여 무능함에 대해 사죄하라. 모두 사퇴하여 용서를 구하라
- 1. 총장의 업무수행능력은 낙제점.
- 2. 대외영향력 및 협상력은 태생적문제로 인해 운신의 폭이 좁아 낙제점.

3. 퇴진을 권고함

- 교수는 학교 행정팀의 도움을 바탕으로 연구,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대학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 안 되는 불통총장.
- 비전이 보이지 않음. 활동도 눈에 띄이지 않음.
- 총장의 리더십은 늘 화려한 언변에 비해서 전혀 성과가 없는 우물 안 개구리식 리더십에 머물다보니 충남대는 개교 이래 최대의 침체와 쇠퇴의 위기를 맞고 있음. 결론적으로 총대는 새로운 비전, 발전정책과 전략, 새 리더십 그리고 총대 구성원들의 자신감회복을 위한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함.
- 평교수들의 하소연이나 문제점을 듣는 기구도 없고, 조금 있더라도 총장의 무성의한 태도가 문제임
- 총장 이하 보직자의 리더십과 책임의식이 결여됨.
- 1. 총장과 본부주요보직자의 의사결정 지연 및 회피로 인한 리더십 부재
2. 단위부서 보직자마저도 총장과 본부주요보직자를 만나기 어려운 불통의 의사소통체계
3. 대학의 중요현안을 공식의사 결정구조가 아닌 사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결정하는 의사결정체계의 사유화.
- 단과대학 자율경영체제(선호도 조사 등)는 잘한 부분.
- 업적에 치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체적으로 학교가 성장하고 있다는 징후가 보이지 않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직무수행이 필요함.
- 구성원과의 소통 필요.
- 소통부족.
- 불통이 아닌 소통하는 총장, 본부가 되길
- 대학의 민주적 경영을 위해 최소한으로 해야 할 구성원의 의견 수렴이 안되고 있습니다. 구성원의 의견을 좀 더 경청하는 리더십을 요구합니다.
- 대학의 장기발전계획은 다년간의 공론화를 거쳐 진정한 충남대학교의 미래상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 즉 총장이 바뀌거나 정치적으로 변화가 생기더라도 계속(꾸준히) 펼쳐야 할 대학정책이 절실함.

- 단과대학 및 교수와의 소통 부족.
- 총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취임 후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이 하나라도 있는지 모르겠음.
- 학교운영의 총장 역할을 전혀 알 수 없음. 총장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내용을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음.
- 1. 16학년도 실시한 단대별 의견수렴을 위한간담회를 참석하였는데, 단대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은 거의 없고, 총장자신의 일방적인 발표와 변명으로 일관하였음.
- 2. 또한 17학년도에는 간담회를 실시하지 않았음.
- 총장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함.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또한 교수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함. 아무 일 하지 않는 총장과 집행부에 교수회의 방조가 가장 컸다고 생각함. 교수회장의 사퇴를 요구함.
- 계속 학교가 정체되는 느낌. 나아진 게 아니라 점점 규제강화로 연구/교육 폭이 줄어들음.
- 외국에 나가 계신 일정이 너무 많음. 대외부총장님이 대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시간강사 및 젊은 교수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 학내현안에 대해 총장의 무능이 갈수록 심화됨. 교수채용 비리 등 언론에 보도된 문제점이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음.
- 직원채용시스템(단기임시근로자의 행정무능력자를 채용, 배치하였다가 일반상용직으로 전환하는 예가 비일비재)의 비리척결 의지도 없음.

7) 기타 의견

- 산학연complex인 대덕연구단지의 수많은 연구소 직접방문해서 우리학생들 취업 및 기회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학교대표자가 뛰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바램임.

- 1. 서문진입로 절대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큰 사고가 여러 번 날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아무조치 없습니다.
- 2. 학내 음주 반입불가 같은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미국대학 참고 바람).
- 3. 학내 소음(학생들의 앰프시설 기준강화)으로 연구, 교육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 4. 전공, 교육, 연구와 무관한 paperwork가 줄어야 합니다.
- 총장은 대학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 혹은 교육부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제10장 종합 의견

모두 6개 대항목 24개의 소항목으로 측정한 이번 중간평가 조사결과는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보였다. 6개 대항목 중에서 ‘교육 분야’(2.99점)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요추진 사업’(2.94점), ‘조직개편 및 네트워크 분야’(2.74점), ‘재정 분야’(2.73점), ‘리더십’(2.65점) 순이었고, ‘연구 분야’(2.58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6개 대항목 모두 평균이 5점 척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3점(보통)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문제제기적 성향’이 강한 ‘교수 집단’이라는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낮은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계열별로 보면, 의약계열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3점 이상으로 보통 이상을 보여준 반면, 그 외의 모든 계열에서는 대체로 보통 이하의 평가를 보여주었다. 특히 전체에서 점수가 가장 낮은 항목은 인문사회계열에서 평가한 ‘리더십’(2.26점)과 ‘연구 분야’(2.27점)였다. 총장의 리더십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비 삭감에 대한 교수들의 불만이 크고 깊다는 의미일 것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전공교육 내실화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제도가 전공교육을 왜곡하여 대학 본연의 전공교육을 심도 있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학생들이 전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타전공을 듣는다고 하여 갑자기 창의적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공을 강화하면서 기타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전공교육이 부실한 대학은 대학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며, 쉬운 과목만 들어도 졸업이 가능한 제도에서 융복합학제간 학문이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전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수전공 이수학점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39학점으로 전공학업을 이수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2015년 이전으로 원상 복귀하여 전공학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학의 학위증 남발은 교육수준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크고, 우리 대학은 여타 거점국립대학들과 비교해도 최저수준이므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는 생각이다.

교양교육 내실화와 관련해서는 인문학 관련 교양교육 외에 자연과학 등 여타 전공분야 관련 교양과목 개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우리 대학은 교양교육 강화가 전공교육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교양 교육도 중요하지만 전공지식을 갖춘 내실 있는 인재 양성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교양대학 설립에 대해서는 성공적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굳이 추진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공유되어 있지 않으며, 전임교수에 의한 교양과목 수업 강화 방안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취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대학을 취업학원화 할 것이 아니라 교양, 지성, 인성을 학습하는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성과평가 지표 향상을 위한 보여주기나 평가지표 향상이라는 목표에 밀려 실제 학과 단위의 전공교육에 기초한 취업 경쟁력의 내실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취업 경쟁력의 강화는 관련 대기업이나 중소기업과의 MOU를 통해서 취업박람회나 면접박람회 등을 개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글로벌 교양 강화에 대해서는 경쟁력 있는 학교와의 MOU를 통해 제대로 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Cyber 강의가 전형적인 거저먹기 과목들의 요람이 되지 않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정원을 하향 설정하고, 실제 수업시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 Web 교통량을 측정할 필요가 있고, 인기 있는 과목이 부실한 과목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필요하다. 단지 머릿수를 늘리는 것은 국제화가 아니며, 시대의 흐름을 수용하는 교육체계의 능동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교육 여건 및 내용을 향상시켜 지역 거점 글로벌 대학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교육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간 대학은 ACE 사업으로 학문 정체성이 와해되고, 특정사업단 요구에 따라 교육프로그램, 교양과목 개설이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보려는 노력이 없이 교육부의 지침이나 행정편의에 따른 일방적인 추진으로 인해서 구성원의 의사가 효과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과목 폐강 기준을 보면 국립대와 서울의 유명 사립대의 경우 대부분 10명인데, 우리 대학만 15명이라는 것이다. 학생 정원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시대적 추세에 대응해서 우리도 과목 폐강 기준을 15명에서 10명으

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연구 분야’는 6개 평가분야 중 가장 낮은 점수(2.58점)를 받았다. 특히 인문사회계열에서 가장 낮은 점수(2.27점)를 받았다. ‘연구 분야’ 소항목들 중에는 ‘교수 연구 인센티브 및 경쟁력 강화’ 분야가 가장 낮았다(2.37점). 의학계열에서만 ‘연구 분야’의 각 소항목의 점수가 다른 계열보다 높다(3.00점). 이런 평가의 온도 차이는 ‘교수의 역량강화’ 소항목 평가에서 도드라진다. 인문사회계열이 가장 낮은 점수(2.29점)를 준 반면에, 의학계열이 가장 높은 점수(3.10점)를 주었다. 특히 ‘글로벌 교수 연구경쟁력 강화’ 항목은 대항목과 소항목 전체에서 ‘잘못함’ 의견이 가장 높았다(32.7%). ‘매우 잘못함’(17.6%)과 ‘잘못함’(32.7%)을 합친 부정적인 평가가 무려 절반이 넘었다(50.3%).

이는 연구 분야에 대한 교수들의 불만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만큼 집중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산학연구본부의 현행 지원서비스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적은 액수의 연구비를 주면서 과도한 단독사사를 요구하는 것은 논문의 급조를 조장하고, 외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의견도 경청할 만하다.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 점도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과 연구의 질 제고를 위해 대학원 논문연구과목(3학점)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교수의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비(신임, 자체, CNU) 원상복구 내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학본부가 재정을 마련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국외파견 TO를 더욱 확대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주요 추진 사업’ 대항목에서 전체 평균 이상의 점수를 얻은 소항목은 ‘대전·세종·충청 연계 캠퍼스 광역화’(3.06점)와 ‘환경친화 인프라구축’(3.00점)이다. 이 두 사업은 전임 총장이 시작한 사업으로 충남대학교 세종병원 신축 및 창조학술정보관(중앙도서관) 신축을 현 총장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

는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면이 있다. 추후 이 두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학내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규로 추진하는 ‘기숙형 교양교육(RC: Residential College)운영’에 대해서는 개방형 질문 응답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표출되었다. 참여자 저조, 예산의 합리적 운영에 대한 문제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내포캠퍼스 설립 추진은 농생대 교수와 학생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고, 세종캠퍼스 설립 추진도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돌파구가 필요한 사항이다. 교수회관 및 게스트하우스, 웰빙 콤플렉스 구축 사업은 전혀 진척이 없다.

또한, ‘학문의 동반성장’ 소항목 점수(2.75점)도 저조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인문사회, 예체능, 기초과학에 대한 학술진흥 정책이 없다”는 불만이 지배적이다. 경쟁과 성과도 중요하겠지만, 인문사회, 예체능 기초과학 분야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곧 기초학문 보호라는 거점국립대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재정분야’는 소항목 중 ‘재정의 효율적 운영’(2.64점)과 ‘교직원의 복지’(2.65점)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 부정적인 평가가 ‘재정건전성 제고’(44.2%), ‘재정의 효율적 운영’(47.9%), ‘교직원의 복지’(44.1%) 항목에서 특히 높았다. 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이 낮은 평가 점수를 부여했고 의약계열이 높은 평가점수를 부여했다. 이는 학문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인문사회계열은 재정적 지원의 총량이 가장 적은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방형 질문을 보면 재정분야의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된다. 첫째, 총장의 발전기금 확보실적이 직전 총장과 비교할 때 매우 저조하다. 현 총장은 발전기금 480억을 약속했지만 모두 89억(2016년 47억, 2017년 42억)에 그쳤다. 발전기금에 대한 공약 실현도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항목에 대한 평가 점수가 낮지 않은 것은 설문 기간 동안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발전기금 모금 사진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공약실현을 위한 총장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비효율적인 홍보비를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읽지 않는 홍보물을 제작할 필요는 없을 것

이다. 현대적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기존의 홍보매체를 선택 집중하는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단과대학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한 재정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문단위에 따라 기본 재정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만, 이 차이가 불평등이라고 여겨져서는 안 될 것이다. 한정된 교육부 재정을 재정지원 사업으로 분할 지급하는 현실 속에서 그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문 분야의 재정 압박을 해결해주기 위한 총장의 노력도 필요하다.

셋째, 교직원의 복지문제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창구를 적극적으로 개설하고 해당 직원의 능력과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상급자 눈치만 보는 복지부동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결국 학교 행정 전체에 연결되는 것이다. 재정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교육에서 총장 리더십에 이르는 학교의 전체 문제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곧 교직원과 학생의 복지문제이다. 아무리 비판해도 소통하며 머리를 숙이는 총장의 겸손한 자세, 아무리 굵은일도 직원보다 앞서 행하는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그것이 복지의 출발이다.

넷째, 연구비 원상복구와 교육대학원 연구보조비(총 4억 9천만 원) 환수 조치로 인한 구제방안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도 많았다. 이 요구는 연구분야의 요구와 그 본질에서 겹쳐지는 문제다.

‘조직 개편 및 네트워크’ 분야에는 전체 항목 중 연구분야의 ‘교수 연구 인센티브 및 경쟁력 강화’(2.37점)에 이어 저조한 점수를 받은 ‘인사 및 평가 시스템의 개선’(2.59점)이란 소항목이 있다. 개방형 질문 응답을 보면 ‘본부 보직 선임의 적절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이다.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면, ‘지인 위주 보직선임,’ ‘전문성 부족,’ ‘논공행상 방식,’ ‘회전문 인사,’ ‘인재풀 빈약’ 등이다. 실제로 공학중심의 주요 보직자 인선(총장, 교학부총장, 대외부총장, 기획처장, 산학연구본부장, 정책연구단장, 총장실장)은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 대학의 본연의 정신에도 부합하지도 않는다. 또한, 2년 이상 연임시키는 보직자 인선(교무처장, 국제교류본부장)도 우려할만하다. 본인의 총장선거를 관리한 선관위원장을 주요 보직에 임명한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합리적인 보직인선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어

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 시스템의 개선’ 관련 현행 교원업적평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교원업적평가 점수가 연구년과 국외파견 심사점수에 반영되면서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리더십’ 분야는 전체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매우 중요한 두 개의 소항목 ‘대학경영 및 최고경영자로서의 직무수행’(2.62점)과 ‘대학의 민주적 시스템 구축 및 경영’(2.68점)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인문사회계열에서 평가 점수가 매우 낮았다. 총장의 리더십 부재, 소통 부족,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실망감이 단적으로 표출되었다. 개방형 질문 응답을 보면, 이런 실망감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대학운영의 방향성과 비전에 보이질 않는다는 지적은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특히 ‘무사안일,’ ‘충체적 무능,’ ‘책임의식 결여,’ ‘불통’ 등의 실망적인 지적도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대학원 연구보조비 지급 부적정’ 감사결과로 인한 환수조치를 대하는 총장의 무책임한 태도는 구성원들을 매우 실망시켰다. 구성원들을 보살피고 이끌기 위한 좀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총장과 대학본부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대학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총장공약사항 중 미추진(추진저조) 사업 목록은 아래와 같다.

- I.1-1 기초교양교육원을 교양교육대학으로 확대 개편
 - I.3-1 글로벌 Top100 학문분야 6개 이상 육성
 - II.3-5 학문적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교육 중심교수제 운영
 - II.4-6 발전기금 480억 확보
 - III.1-2 충남대학교 융합연구원 신설
 - III.2-2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웰빙 캠퍼스 구축
 - IV.4-3 환경친화형 첨단 교직원회관 및 게스트 하우스 건립
- (출처: 총장 공약사항 추진실적 요약본-2018.3.)

공허한 약속이 되지 않도록 위 미추진(추진저조)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적극 실행해야 할 것이다.

본 설문에는 전체 교수의 52.7%(447명)이 참여하여 공정한 평가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었다. 본 특별 특별위원회에서는 투표율 향상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였으나 과반을 넘기는 정도에 그쳤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교수들의 무관심도 무척 아쉽다. 향후 설문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 또한 많은 교수들이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본인들의 의사를 밝힌 만큼 총장 및 본부는 중간평가에서 나타난 전교 교수들의 의견을 겸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총장과 대학본부가 이번 중간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개선안을 적극 마련하여 우리 대학이 민주적이고, 품격을 지니고, 비상(飛上)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부 록

1. 중간평가용 설문지
2. 총장 공약사항 추진실적 요약본(기획처)

총장 및 본부 업무수행 중간평가 전체 교수 의견 조사

충남대학교 제18대 오덕성 총장의 임기가 2018년 2월 18일로 절반이 경과하였습니다. 이에 충남대학교 교수회는 2017년도 4차 전교교수평의회(11.29.)의 의결에 따라 현 총장의 임기 전반기의 업무수행 성과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중간평가를 위한 항목은 ① 총장의 공약 이행과 ② 총장과 본부의 정책 및 업무수행에 관한 것으로서, 총 6개 영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중간평가는 그동안 총장과 본부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과 업무수행 성과를 전체 교수님의 눈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없애고 더욱 바람직한 대학 운영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도록 촉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설문 항목에 대한 교수님의 공정하고 신중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교수님들의 평가를 돕기 위해 현 총장이 후보로서 제시했던 공약 내용과 그간 본부의 '추진실적 요약본' (기획평가과 작성, 총 19쪽 분량)을 설문지와 함께 보내드립니다. 공약사항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설문지 각 소항목 문항마다 실적 요약본 분류번호를 표시했습니다(예: 공약 I.2-3).

교수님들께서는 중간평가가 민주적인 의견 수렴과 이를 통한 학교 발전이라는 소기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문조사에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고, 귀중한 응답 결과가 잘 취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조사는 중간평가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응답자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 3.

충남대학교 교수회 총장 및 본부 업무수행 중간평가 특별위원회

1. 설문지 회수 방법

설문지를 동봉한 봉인봉투(무기명)에 넣어 밀봉하여, 이를 설문지 회신용 봉투에 넣어 학과사무실이나 단과대학(원) 행정실에서 취합한 후, 교수회 사무실(대학본부별관 515호)로 보내주시십시오. 반송용 봉투는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수가 완료된 후에 함께 개봉하겠습니다.

2. 조사 및 회수 기간 : 2018년 3월 26일(월) ~ 4월 6일(금)

1. 교육 분야

평 가 항 목	매우 잘함	잘함	보통	잘못함	매우 잘못함
① 교양교육 내실화	⑤	④	③	②	①
- 학문기초교양 및 역량별 교양교육의 내실화(공약 I.1-3) - 인문학 기반 교양교육 내실화 시스템 구축(공약 I.1-4) - 기초교양교육원을 교양교육대학으로 확대 개편(공약 I.1-1)					
② 글로벌 교양 강화	⑤	④	③	②	①
- 인성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공약 I.1-6) -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공약 I.1-5)					
③ 전공교육 내실화	⑤	④	③	②	①
- 전공교육 운영방법의 다양화(공약 I.2-1) - 융합기반 전공교육 내실화 시스템 구축(공약 I.2-6) -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융·복합 연계프로그램 확대(공약 I.2-3)					
④ 취업 경쟁력 강화	⑤	④	③	②	①
- 학문단위를 넘나드는 자기설계전공의 활성화(공약 I.2-2) - 산업수요기반 융복합 전공교육강화(공약 I.2-4) -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학제적 현장실습 강화(공약 I.2-5)					

※ 주요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2. 연구 분야

평 가 항 목	매우 잘함	잘함	보통	잘못함	매우 잘못함
① 교수의 역량강화	⑤	④	③	②	①
- 지역 전략사업기반의 연구역량프로그램 확대(공약 I.3-2) - 학문적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교육 중심 교수제도 운영(공약 II.3-5) - 연구역량/산학협력 강화 수요자 중심 제도 개선(공약 II.3-4)					
② 교수 연구 인센티브 및 경쟁력 강화	⑤	④	③	②	①
- 논문게재 장려금 확대(공약 I.3-3) - 우수 교수 확보 및 대학원 연구 지원 프로그램 확대(공약 I.3-5)					
③ 연구 및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연구소 경쟁력 강화	⑤	④	③	②	①
- 연구활성화를 위한 연구소 지원(공약 I.3-4) - 학과 중심의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발 지원(공약 I.4-1) -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공약 I.4-2)					
④ 글로벌 교수 연구경쟁력 강화	⑤	④	③	②	①
- 글로벌 Top 100 학문분야 6개 이상 육성(공약 I.3-1) - 글로벌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공약 I.4-4) - 학과 중심의 국제교류 활성화 및 지원체제 개선(공약 III.4-2)					

※ 주요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3. 주요 추진 사업

평 가 항 목	매우 잘함	잘함	보통	잘못함	매우 잘못함
① 학문의 동반성장	⑤	④	③	②	①
- 학문의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조달(공약 Ⅲ.1-1) - 충남대학교 융합연구원 신설(공약 Ⅲ.1-2) - 인문사회·예체능·기초과학 진흥사업 지원 확대(공약 Ⅲ.1-3) - 학문간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공약 Ⅲ.1-4)					
② 글로벌 캠퍼스 구축	⑤	④	③	②	①
- 글로벌 산학협력 네트워크 강화(공약 Ⅲ.2-1) - 글로벌 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공약 Ⅲ.2-3) - 학교-동문-지역 상생 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공약 Ⅲ.2-5) - 유학생 친화형 글로벌 캠퍼스 구축(공약 Ⅲ.4-1)					
③ 대전 · 세종 · 충청 연계 캠퍼스 광역화	⑤	④	③	②	①
-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산학협동캠퍼스 건립(공약 Ⅲ.3-1) - 세종캠퍼스 설립 추진과 대학병원 연계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원(공약 Ⅲ.3-2) - 글로벌 융·복합 교육 및 연구중심의 대덕캠퍼스 운영(공약 Ⅲ.3-3)					
④ 기숙형 교양교육(RC:Residential College)운영	⑤	④	③	②	①
- 학내 교육여건을 반영한 프로그램의 운영(공약 I.1-2) - 기숙형 교양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공약 I.1-2) - 기숙형 교양교육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과정(공약 I.1-2)					
⑤ 환경친화 인프라구축	⑤	④	③	②	①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제도 개선 - 그린 커뮤니티기반의 환경친화 인프라 구축 - 중앙도서관 증축과 연계한 문화정보 소통형 University-Mall 건립(공약 IV.4-2) - 환경친화형 첨단 교직원회관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공약 IV.4-3) - 학내 보건진료의 개선 및 대학병원과의 협력 제고(공약 IV.4-4)					

※ 주요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4. 재정 분야

평 가 항 목	매우 잘함	잘함	보통	잘못함	매우 잘못함
① 발전기금 확보	⑤	④	③	②	①
- 발전기금 480억 확보(공약 Ⅱ.4-6)					
② 재정건전성 제고	⑤	④	③	②	①
- 국책사업 대응 전담팀 신설(공약 Ⅱ.4-1) - 기업 연구개발센터 유치(공약 Ⅱ.4-2) - 학교기업 설립 및 운영(공약 Ⅱ.4-4)					
③ 재정의 효율적 운영	⑤	④	③	②	①
- 수입대체경비기관 활성화 및 경영 효율화(공약 Ⅱ.4-5) - 교원 지적재산권 수익 창출 지원(공약 Ⅱ.4-3)					
④ 교직원의 복지	⑤	④	③	②	①
- 여성교직원의 친환경 복무환경 구축(공약 IV.3-1) - 생애 맞춤형 가족복지제도 개선(공약 IV.3-2) - 건강한 직무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공약 IV.3-3) - 대학생할 만족도 향상을 위한 학생복지 개선(공약 IV.3-4) - 교직원의 여가활동을 위한 친환경 웰빙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공약 IV.3-5)					
⑤ 교직원 직무역량 강화	⑤	④	③	②	①
- 우수한 교직원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공약 IV.2-1) - 직업기초능력 함양 프로그램 확대 및 생애주기별 역량 관리 시스템 구축(공약 IV.2-2) - 교수 학습법 개발을 위한 지원 확대(공약 IV.2-3) - 이 달의 교직원상 수여 및 우수사례집 발간(공약 IV.2-4) - 국내외 대학 파견 연수 프로그램 확대(공약 IV.2-5)					

※ 주요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5. 조직 개편 및 네트워크

평 가 항 목	매우 잘함	잘함	보통	잘못함	매우 잘못함
① 충남대 행정 시스템 개선	⑤	④	③	②	①
- 대학 행정조직의 기능적 개편(공약 Ⅱ.3-6) -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 개편(공약 Ⅱ.1-3) - 우수학생유치를 위한 입학전형제도 개선(공약 Ⅱ.1-1) - 산학협력 체질강화를 위한 제도 및 행정절차 간소화(공약 Ⅰ.4-3) - 효율적 재정관리시스템 구축 - 본부 조직 개편에 대한 홍보와 공론화 과정					
② 산하 기관별 행정 시스템 개선	⑤	④	③	②	①
- 대학의 기획, 평가 및 성과 관리 기능의 역량 강화(공약 Ⅱ.3-3) - 입학생에 대한 전담관리체계 구축(공약 Ⅱ.1-2) - 국제취업역량 강화 지원프로그램 운영(공약 Ⅱ.1-4) - 학생 경력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활성화(공약 Ⅱ.2-3) - 학생 친화형 생활 및 학업 상담 기능의 개선(공약 Ⅱ.2-5)					
③ 인사 및 평가 시스템의 개선	⑤	④	③	②	①
- 공정한 교직원 업적 평가 시스템 구축(공약 Ⅱ.3-1) - 본부 보직 선임의 적절성					
④ 지역과 중앙 네트워크의 강화	⑤	④	③	②	①
-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웰빙 콤플렉스 구축(공약 Ⅲ.2-2) - 지역 공동체와 연계한 재능기부 활성화(공약 Ⅲ.2-4) - 충청인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활성화(공약 Ⅲ.2-6)					

※ 주요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6. 리더십

평 가 항 목	매우 잘함	잘함	보통	잘못함	매우 잘못함
① 대학경영 및 최고경영자로서의 직무수행 - 미래지향적 비전 및 발전전략 제시 - 학내현안에 대한 총장의 주도적 대처능력 - 단과대학 특성에 맞는 자율경영체제 강화(공약 Ⅱ.3-2) - 전략적인 대학평가 지표관리의 집중적인 관리를 통한 국내 Top 10 대학 진입	⑤	④	③	②	①
② 대학의 민주적 시스템 구축 및 경영 - CNU포럼 및 연 2회 이상의 단대별 의견수렴 정례화(공약 IV.1-1) - 대학신문방송의 혁신을 통한 스마트 소통 문화 구현(공약 IV.1-2) - 정책 제안 아이디어 활성화를 위한 포상제 실시(공약 IV.1-3) - 대학본부/교수회 간담회 활성화 및 중간평가 의무화(공약 IV.1-4) - 소통과 복지를 위한 전문 위원회 신설(공약 IV.1-5) - 공유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및 프로그램 활성화(공약 IV.1-6) - 평가기획팀 활성화 및 공약이행 점검(공약 IV.1-7)	⑤	④	③	②	①

※ 주요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장 공약사항 추진실적 요약본



2018. 3.

충 남 대 학 교
기획처 기획평가과

1

총장 공약사항 주요 성과

구 분	주요 성과
I. 4차 산업혁명대비 지역선도대학 역할	- 충남대 세종 및 내포캠퍼스 설립 추진('16.11.~'17.12.) - 세종시와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체결('17.3.) - LH와 장대동 부지 교환 협약 체결('17.3.) - 행복청과 행복도시 캠퍼스 설립을 위한 협약 체결('17.6.) - 충남대-충남도-LH 3개기관 MOU 체결('17.12.) -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대전/충남지역 국립대학 연계협약 체결('17.1월, 충남/공주/한밭/공주교대) - 대전시 4차산업특별시 Startup Town 조성 및 도시재생사업 공동 추진
II. 스마트 소통문화 구현	- Jump CNU Forum 실시(17회) - 대학본부-교수회 간담회 및 단과대학 순회간담회 활성화(11회) - CNU News 및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활용 온라인 소통
III. 대외평가 선전	-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16.12.) - 대한민국 서비스 기업 품질지수 지방국립대 1위 선정('16.11.) -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 최우수 등급 선정('16.5.) - QS, THE 등 해외 대학평가 대응 업무매뉴얼 시스템 구축 추진
IV. 교육분야	- 융복합창의전공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정 제·개정('17.6.~8.) - 연계/자기설계/산학융복합 전공 등 다양한 융복합창의전공 운영, 문제 해결중심 전공교과목 확대, SW전공교육 강화('16년~계속) -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기숙형(RC) 교양교육프로그램 운영 - 18개학과, 600여명('18년도는 2,000명으로 확대)
V. 연구분야	- 논문의 질적 제고를 위한 상위등급 논문게재 장려금 비율 확대('17.3.) - 신임교원 연구활성화를 위해 연구력증진 간접비 지원(10%→20%) 확대, 국제 학술회의 지원 연2회로 확대('17.3.) - 연구소평가 우수연구소에 대해 학술연구비 추가지원('17.9)
VI. 글로벌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 인도네시아 PT SIDO MUNCHUL 및 과학원과 협약 체결('16.3.) - 영국 Surrey 연구단지와 글로벌산학협력 체결('16.4.) - 미국 블룸필드 대학 취·창업 교육 협정체결('16.7.) - New-York Office를 Bloomfield 대학 내 설치('16.7.) - 중국 위해시 과학기술교류 MOU 체결('17.8.) - 알리바바 클라우드 아카데미 운영('17.9.) - 이스라엘 대학 및 고등교육청 방문 학술교류/협력방안 논의('17.11.)
VII. 학생 분야	-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개편: 인재개발원 신설('17.5.) - 학생복지 : "천원의 아침" 식사 제공('16.9.~)
VIII. 대학행정조직 기능 개편	- 정보분석센터, 인재개발원 신설, 국제교류본부 확대 개편('16.6.) - 학생상담센터, 사회봉사센터 신설('16.11.) - 교육혁신센터, 산학협력중개센터, 아시아권국제교류협력센터 신설('17.11.)
IX. 정부재정사업선정 및 발전기금 유치	- 대학특성화사업, BK21플러스사업,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 등 선정 - 발전기금 100억 확보 -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 고유모델구축(수평적 협업체계, 지역사회 공헌 등)

존경하는 충남대학교 가족 여러분!

2016년 2월 제18대 충남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여 우리 대학의 구성원 여러분들께 대학발전 계획을 제시하고 시행 약속을 드린 지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우리 대학은 지역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전·세종·충청권의 발전 여건을 적극 활용하여 “세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표 대학”으로 도약하고자 교수님, 직원 선생님을 비롯한 대학의 모든 구성원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의 위상을 높이고 구성원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당초 약속드린 공약에 대한 추진현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공약사항은 Ⅰ 교육, 연구, 산학협력의 수월성 제고 Ⅱ 경쟁력 강화지원 시스템 구축 Ⅲ 지역연계 동반성장 Ⅳ 행복한 대학 공동체 실현과 같이 4개 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공약사항별로 추진상황,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과 함께 담당부서를 연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한편, 당초 계획되었던 공약 이외에 교육환경 여건의 변화, 지역거점대학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우리 대학의 운영 사항을 말씀드리고 교수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속에 교육부의 1주기 대학구조개혁의 후속인 대학 기본역량진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대학의 캠퍼스 역량을 충청권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세종 및 내포 캠퍼스 설립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 균형발전의 중심인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4차 산업혁명 핵심과제인 창업(Start Up)타운 조성 및 도시재생사업에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전국국립대학 회장교로서 정부, 국회와 함께 국가 고등교육정책 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우리 대학이 선도적인 위치에서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남은 임기 동안 구성원의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사항을 함께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3.

충남대학교 총장 오 덕 성 드림

붙임

세부 공약별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공약사항		추진 상황		추진 실적(2016~2017)	향후 추진 계획 (2018~2019)	담당부서
I. 기초교양교육원	I. 1-1 확대 개편	미추진	추진중(진행률) ~30% 30~70% 70%~	안료		기초교양 교육원
I. 1-2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기숙형(RC) 교양 교육프로그램 운영		●		- 기초교양교육원의 교양대학화를 위한 계획 수립 중 - 입학 전·후 (예비)신입생 대상 '동기 부여 주간' 운영,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RC 생애주기별 밀착관리 추진 - 대학생활 적응력과 향후 진로 탐색능력을 키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운영	학생 생활관
I. 1-3	학문기초교양 및 역량별 교양교육의 내실화		●		- 교양교육과정 개편 추진 -핵심역량 및 교과목 재분류, 교양교과목 주관 부서 이관, 교양교육 담당강사 통합 운영 등 -신규 교양교과목 지속 개발 및 운영	기초교양 교육원
I. 1-4	인문학 기반 교양교육 내실화 시스템 구축		●		인문학 기반 교양교과목 지속 개발	기초교양 교육원
I. 1-5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		●		인재개발원의 학생경력개발시스템 구축 시 시스템을 활용한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체계적 관리 추진('18.5)	기초교양 교육원
I. 1-6	인성교양교육프로그램 운영		●		- 인성 관련 교과목 운영 - 인성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초교양 교육원

공약사항	추진 상황			추진 실적(2016~2017)	향후 추진 계획 (2018~2019)	담당부서
	미추진	추진중(진행률)	완료			
	~30%	30~70%	70%~			
I. 2-1 전공교육 운영방법의 다양화			●		▶ 캠퍼스디자인 교과목 개발: 4건('18.2.) ▶ [ACE]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전공 교육과정 운영방법 연구('18.2.)	교무과
I. 2-2 학문단위를 넘나드는 자기설계전공의 활성화			●	▶ '융·복합창의전공 필수이수' 제도화 ※ 학칙개정('16.2.) ▶ 스포츠코칭 외 3건 운영('17.2.) ▶ 자기설계전공 설치 및 세부운영 마련 ※ 융복합창의전공 지침 제정('17.8.)	▶ 자기설계전공 학칙 반영 및 운영 2건('18.2.) - 스포츠심리상담, 고전문화창의전공 ▶ [ACE] 자기설계전공 문화예술경영전공 외 6건 개발('18.1.) 및 추가 공모(계속) ▶ 자기설계전공 홍보 설명회 개최 등 활성화 추진(계속) ▶ 자기설계전공 전담조직 신설 검토	교무과
I. 2-3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융·복합 연계프로 그램 확대			●	▶ 연계전공 4건 신설 포함 20개 운영 - 백제학, 충청학('16.9.) - 미래기술창업학, 통일리더십과 개발협력 ('17.2.)	▶ 다양한 융복합 연계전공 개발 및 운영 (계속)	교무과
I. 2-4 산업수요기반 융복합 전공교육 강화			●	▶ 학과별 SW융복합 전공교과목 신설 및 이수 의무화('17.2.) ▶ 산학융복합전공 설치 및 세부운영 마련 ※ 융복합창의전공 지침 제정('17.8.)	▶ 산학융복합전공 신설: 1건 - 에너지공학전공('18.2.) ▶ 다양한 산업수요를 반영한 산학융복합전공 신설 추진(계속)	교무과
I. 2-5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제적 현장실습 강화			●	▶ 인턴십 기업용 교육매뉴얼 제작 배포 ('17.2.) ▶ 백마인턴십 활성화 - '17학년 이수학생 782명	▶ 현장실습 내실화를 위한 기업 방문 면담 및 분류, 기업 분석 및 DB구축	인재 개발원
I. 2-6 융합기반 전공교육 내실화 시스템 구축			●	▶ CNU 융복합창의전공 운영('17.2.~) ▶ 융복합창의전공 지침 제정('17.8.)	▶ 융복합창의전공 온라인 관리시스템 개발 추진 ('18.~'19)	교무과

공약사항		추진 상황		추진 실적(2016~2017)	향후 추진 계획 (2018~2019)	담당부서
I. 3-1	글로벌 Top100 학문분야 6개 이상 육성	미추진	추진중(진행률)	안 료		
I. 3-2	지역 전략산업기반의 연구역량 프로그램 확대		●	▶ 최근 3년간 학문분야평가결과를 기준으로 6개 분야 선정 검토 ▶ 지역신산업 선도인력 양성사업 2건 수주(3억원) ▶ 산업선도원천기술개발사업 수요조사 추진(3건)	▶ 국립대혁신지원사업(Point)에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6개 분야 집중 육성 추진 ▶ 지역산업 연계 재정지원사업 발굴 ▶ 전략산업 기반 내부 육성 지원체계 마련	기획평가과
I. 3-3	논문게재장려금 확대		●	▶ JCR 상위 5% → SCI기준액 300% ▶ JCR 상위 10% → SCI기준액 200% ▶ JCR 상위 15% → SCI기준액 150%	▶ 논문의 질적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연구지원과
I. 3-4	연구활성화를 위한 연구소 지원		●	▶ 간접비 연구소 배분('16.12.) -간접비 징수액의 10%(13억원) ▶ 학문중심연구소 운영비 지원('16.12./ '17.12.) -36개연구소 0.5억원 지원	▶ 연구소 중심 대형과제 수주를 위한 연구소 지원 방안 강구	연구지원과
I. 3-5	우수 교수 확보 및 대학원 연구 지원 프로그램 확대		●	▶ 연구우수특별채용 제도를 운영하여 연구 우수교원 채용 ▶ 대학원생 연구실적·경력 관리시스템 개발('16.6) -대학원생 연구실적 관리 및 통계업무 지원 사업에 활용 ▶ 연구활성화 지원 사업 -우수논문 게재 장려금 지원 -국내외 학술 회의 및 전시회 등 참가 장려금 지원 ▶ 정보화교육 지원 및 어학응시료 지원 사업 ▶ 해외협약대학 학술교류 프로그램 실시('17.6.) -일본 규슈대학교 등	▶ 연구우수 교원, 영어강의 기능 교수 채용 등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관련지침 개정 추진('18.4.) ▶ 대학원생 연구실적·경력 관리시스템 활용 -대학원생 연구실적 관리 및 통계업무 -시스템 유지보수 및 보안을 통한 활용 범위 확대 방안 마련 ▶ 연구활성화 지원 사업 -우수논문 게재 장려금 지원 -국내외 학술 회의 및 전시회 등 참가 장려금 지원 ▶ 정보화교육 지원 및 어학응시료 지원 사업 ▶ 해외협약대학 학술교류 프로그램 실시	교무과 대학원 지원실

공약사항	추진 상황			추진 실적(2016~2017)	향후 추진 계획 (2018~2019)	담당부서
	미추진	추진중(진행률)	완료			
	~30%	30~70%	70%~			
I. 4-1 학과중심의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발 지원		●		▶ 캠퍼스디자이너 지원 -3, 4학년 대상 캠퍼스디자이너 교과목 팀별 운영경비 지원 ▶ 대학 창의적자산 실용화사업 추진('17.3.) ▶ TMC사업을 통한 기술사업화 역량강화('17.4.~) -BM설계, 후속R&BD, 우수기술발굴 및 기술 마케팅 등 수행 완료 ▶ 발명인터뷰 및 공공IP활용 지원사업을 통한 우수IP확보 및 기술이전 완료('17.3.~11.) -발명인터뷰 144건 수행 -기술이전 6건 완료	▶ 인문, 사회, 예술, 자연과학, 공학계열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21년 참여율 36%로 향상 ▶ 3차년도 대학기술경영촉진사업(TMC) 수행 -기술이전 및 기술창업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도모 -기술사업화 활성화, 자회사 성장, 자금 확보를 통한 TMC사업단 자립화 ▶ 발명인터뷰 및 공공IP활용 지원사업 수행 -우수IP확보를 통한 조기 기술이전 등 기술 사업화 활성화	LINC+ 사업단
I. 4-2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		▶ 산학협력 체질강화를 위한 제도 -가족회사 신규 협약: 89개('18.1.) ※가족회사 운영: 1,005개 ※유료가족회사 운영: 18개/ 17,800천원 ▶ 학내 산학협력창구의 일원화를 위한 산학 협력중개센터 설치('17.11.)	▶ 가족회사 통합관리, 우수가족회사 발굴·육성 -산학중개시스템 기반 On/Off-line 기업지원 종합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 연계 강화 -쌍방 협력이 강조된 충남대 유료가족회사 (CNU-ACT)운영 및 맞춤형 기업지원 강화 ▶ 산학협력중개센터 -원스톱 토털케어 시스템 구축 예정 -산학연 트라이앵글 모델 개발	산학 협력팀
I. 4-3 산학협력 체질강화를 위한 제도 및 행정절차 간소화		●		▶ 미국 거점기지 New-York Office를 Bloomfield 대학 내 설치('16.7.) ▶ 영국 Surrey 연구단지와 글로벌산학협력 체결('16.4.) ▶ 싱가포르 난양기술대 글로벌 기술창업 산학 협력중개센터 구축 ▶ 인도네시아 PT SDO MUNCHUL 및 과학원과 협약 체결('16.3.) ▶ 중국 위해시 과학기술교류 MOU 체결('17.8.) ▶ 알리바바 크라우드 아카데미 운영('17.9.)	▶ 중부권 기업의 세계화 지원 -국제화 지원 기업 지원 센터 운영 -글로벌 산학협력 MOU 체결 확대 및 글로벌 인턴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	산학 협력팀
I. 4-4 글로벌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				LINC+ 사업단

공약사항	추진 상황			추진 실적(2016~2017)	향후 추진 계획 (2018~2019)	담당부서
	미추진	추진중(진행률)	완료			
	~30%	30~70%	70%~			
II. 1-1 우수학생유치를 위한 전문가 확보 및 입학전형제도 개선		●		▶ 전임입학사정관 교육-훈련: 195시간 ▶ 위촉입학사정관 교육-훈련: 46.5시간 * 교육훈련 권장 시수 충족	▶ '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 위한 전임 및 위촉입학사정관 교육-훈련을 지속적 운영 ▶ 학과 인제상에 부합한 대입교육정책을 반영하여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입학과
II. 1-2 전형별 입학생에 대한 전담관리체계 구축		●		▶ 어계동무 입학 후 프로젝트 -저소득층 재학생의 대학생활 안정 도모 및 학업지속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 고른기회전형 입학생 및 저소득층 재학생 대상 교육활동 지원 프로그램 확대 추진	입학과
II. 1-3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 개편			●	▶ 대학 내 취·창업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인제개발원 신설('16.6) ▶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선정 및 학내 창업관련 창구 일원화를 위한 창업지원단 신설('17.5.)		기획 평가과
II. 1-4 국제 취업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글로벌인재양성 해외파견(인턴십) 프로그램 - '16학년도 25명/ '17학년도 상반기 5명 파견 ▶ 글로벌 취업박람회 및 국내기업 입사대비 면접 특강('17.9) ▶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 CNU-BC(Bloomfield College): 48명 - 영국 첨단산업(세펠드 대학): 7명 -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6명 - 호주 브리즈번 시청: 5명 - 일본(2명), 인도네시아(2명) ▶ 대학글로벌 현장학습 운영: 9명	▶ 인턴십 프로그램의 전문성강화를 위하여 인제개발원으로 이관하여 통합 운영 ▶ 해외인턴십 통합운영 관련 규정·시스템 개선 ▶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 CNU-BC(Bloomfield College): 33명 - 호주 브리즈번 시청: 10명 - 일본(2명), 인도네시아(2명) - TWC(The Washington Center): 4명 - 일본(2명), 인도네시아(10명), 베트남(20명)	인제 개발원
II. 1-5 지속가능한 학생관리 시스템 구축			●	▶ 입학전형별/ 고교유형별/ 계열별/ 단과대학별 전형 유형에 따른 학업성취도,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 전반에 관한 만족도 분석	▶ 입학전형의 기초자료 활용과 입학 전·후 대학생할 추수지도 운영방향 제시 ▶ 전형별 학생선발의 방향성 제시	입학과
II. 1-6 장학제도 개편 및 지원 확충			●	▶ 지역인재 유치를 위한 장학금 수혜지역을 충청권 전지역으로 확대('17학년도) ※ 대전·충청 장학금 52명, 45,460천원 지급 ▶ '16~'17학년도 학생과 교내 장학금 집행률 99.9% 달성	▶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장학금 지원노력 확대 ▶ '18학년도 학생과 교내 장학금(160억원) 집행률 99.9% 달성	학생과

공약사항	추진 상황			추진 실적(2016~2017)	향후 추진 계획 (2018~2019)	담당부서
	미추진	추진중(진행률)	완료			
	~30%	30~70%	70%~			
II.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온라인교육(MOOC)의 활성화		●		▶ CNU-MOOC 시스템 구축('16.3.) ▶ CNU-MOOC 6개 강좌 운영 ▶ K-MOOC 4개 강좌 운영('17.12.) ▶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17.11.) ▶ K-MOOC 2개 강좌 개발	▶ CNU-MOOC 강좌 운영 내실화 ▶ CNU-MOOC 2개 강좌 개발 및 운영 ▶ K-MOOC 강좌 추가 개발 및 운영(4개→6개)	기초교양 교육원
II.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대학 교육인증제 내실화 및 확대		●		▶ 학내 자율 인증을 통한 전공교육의 학생 핵심역량 구축 지원	▶ 'CNU STRONG 전공인증제' 확립을 위한 계획을 교무과와 협의하여 지속 추진	기초교양 교육원, 교무과
II. 취업을 제고를 위한 학생경력종합관리 시스템을 운영 활성화		●		▶ 유관기관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한 실무 추진단 구성 ▶ CNU 핵심역량인증제 개발: 핵심역량과 NCS 직업기초능력을 직무에 매칭	▶ 학생경력종합관리시스템 시범 서비스('18.3.) ▶ 학생경력종합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화 작업('18.3.~5.) ▶ 정식 서비스 오픈 예정('18학년도 2학기)	인재 개발원
II.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수학습방법 개선, 환류시스템 활성화		●		▶ '16~'17년도 기초교양교육원 교수-학습 프로그램 요구조사 실시 ▶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6대 핵심역량 진단도구를 통해 사전사후 검사 실시('17년도)	▶ 사전사후 검사를 바탕으로 비교과 프로그램 재정비(CNU Learning System 수정 및 보완)	기초교양 교육원
II. 학생 친화형 생활 및 학업 상담기능의 대폭적 개선		●		▶ 학생상담센터 신설('16.12.) ▶ 맞춤형 인성 및 학습지도 프로젝트 추진('17.1~) ▶ 인성 및 학습 진단 대상자 선별 및 결과 분석 ▶ 프로그램 개발 확대(ONE-STOP 상담기관) ▶ 1차 인성 및 학습지도 진단결과 분석 ▶ 미래설계상담 학생지도 로드맵 제작	▶ 성적경고자 지원 체제 운영(매학기) ▶ 대학생생활적응척도(CNU-PSLT) 전수조사 실시 및 특성 분석 ▶ 고위험군 학생 관리 프로토콜 개발	학생상담 센터
II. 세계도약을 위한 해외대학과의 학점 교류 활성화		●		▶ '16학년도 우리대학→타 대학 학점교류 (16개국 74개 대학 544명 파견) ▶ '16학년도 타 대학→우리대학 학점교류 (24개국 69개 대학 282명 초청) ▶ '17학년도(1학기) 우리대학→타 대학 학점 교류(13개국 56개 대학 339명 파견) ▶ '17학년도(1학기) 타 대학→우리대학 학점 교류(20개국 59개 대학 196명 초청)	▶ 학생 국제역량 강화를 위한 Out-bound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대 및 해외 우수 자원 유치 In-bound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외국 대학들과 지속적인 학점교류 추진	국제 교류과

공약사항	추진 상황			추진 실적(2016~2017)	향후 추진 계획 (2018~2019)	담당부서
	미추진	추진중(진행률) ~30% 30~70% 70%~	완료			
II. 3-1 공정한 교직원 임직 평가 시스템 구축		●		▶ 학내 의견을 수렴하여 교원임직평가 시행 지침의 평가항목 추가 반영('16.6) -평가영역별 인정항목 추가: 교육 2건, 봉사 3건, 연구 1건 ▶ 직무성과 중심 평가제도 확립('16.9) -7급 이하 근무성적평정 시 경력평점제 제외 ▶ 직무성과 중심 평가제도 운영 -'18.1.1.자 7급 이하 승진심사 시 '17년 직무역량평가를 반영	▶ 구성원 의견수렴, 교원임직평가 제도의 지속적 분석 및 개선을 통한 공정한 임직 평가 시스템 운영	교무과
II. 3-2 단과대학 특성에 맞는 자율경영체제 강화			●	▶ 학장후보자 내부공모제 폐지 ▶ 역량 있는 학장후보자 발굴 및 검증 강화 (면접심사 강화)	▶ 직무성과 중심 평가체제의 내실 있는 운영	총무과
II. 3-3 대학의 기획, 평가 및 성과 관리 기능의 역량 강화			●	▶ 정보분석센터 신설('16.6) -대학 운영을 위한 정보 수집·분석·진단·개선·관리 등 상시 정보 지원 ▶ 세계대학평가 대응 업무매뉴얼 구축	▶ 단과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역량 있는 학장후보자를 발굴하고 강화된 면접심사를 통한 책무성과 자율성 부여	교무과
II. 3-4 연구역량/산학협력 강화 수요자 중심 제도 개선			●	▶ 산학협력단 민원서비스 추진('16.5.) -헬프데스크, 전문상담원 운영 -민원서비스 전용 전자메일 개설 ▶ 신입교원 지원('17.3) -연구력증진 기여사업 지원금 확대(200%) -신임교원 국제학술회의 발표지원 확대(2회)	▶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추진('18.2.)	연구지원과, 산학협력팀
II. 3-5 학문적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교육 중심 교수제 운영		●		▶ 전임교원강의비율 산정, 교원책임시수 조정, 전체 교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제도마련	▶ TF팀 구성, 교원인사제도개선위원회,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 마련 및 시행('19.2.)	교무과
II. 3-6 대학 행정조직의 기능적 개편			●	▶ 정보분석센터, 인재개발원 신설, 국제교류본부 확대 개편('16.6.) ▶ 학생상담센터, 사회봉사센터 신설('16.11.) ▶ 교육혁신센터, 산학협력중개센터, 아시아권 국제교류협력센터 신설('17.11.)	▶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18.4.) 결과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 검토/추진('18.7.)	기획평가과

공약사항	추진 상황			추진 실적(2016~2017)	향후 추진 계획 (2018~2019)	담당부서
	미추진	추진중(진행률)	완료			
	~30%	30~70%	70%~			
II. 4-1	국책사업 대응 전담팀 신설	●		▶정부재정지원사업총괄추진단 기능 강화 추진 (’18. 3.)	▶기획평가과에 재정관리계 신설(예정)	기획 평가과
II. 4-2	기업 연구개발센터 유치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운영 -’16년도: 13개 과제/ 1,206백만원 -’17년도: 14개 과제/ 1,716백만원 ▶산학공동연구개발과제 지원 -’16년도: 19건/ 550백만원 -’17년도: 20건/ 549백만원	▶산학협동캠퍼스 건립과 동반 추진	산학 협력팀
II. 4-3	교원 지적재산권 수익 창출 지원		●	▶지식재산권 총 보유건수: 2,532건(’18.1.) -’17년도: 출원 435건, 등록 268건 ▶기술이전수입료 매년 증가 -’15년도: 86건/ 1,100백만원 -’16년도: 140건/ 1,647백만원 -’17년도: 92건/ 1,821백만원	▶발명인터뷰제를 통한 강한 IP 창출 지원 ▶기술이전 축진을 위한 마케팅 및 수요기업 발굴	산학 협력팀
II. 4-4	학교기업 설립 및 운영	●		▶충남대학교 학교기업 운영에 관한 운영 세칙 개정 ▶학교기업 설치 희망 대학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 및 지원	▶충남대학교 학교기업 운영에 관한 운영 세칙 개정 ▶학교기업 설치 희망 대학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 및 지원	산학 협력팀
II. 4-5	수입대체경비기관 활성화 및 경영 효율화		●	▶수입대체기관(34개 기관, 62개 사업)의 경영 효율화 제고 및 대학재정 기여를 위한 공공 요금 부담률 단계적 인상 ※ 15%(’15)→20%(’16)→30%(’17, ’18)	▶수입대체기관의 활성화 및 경영합리화, 대학 재정 기여 방안 마련 ▶수입대체경비 통합운영개선: 징수하는 사용료 수입으로 운영되는 수입대체경비 사업은 대학회계 자체수입 세입·세출예산에 통합편성	재무과
II. 4-6	발전기금 480억 확보	●		▶’16년도 모금액: 4,695,848천원 ▶’17년도 모금액: 4,239,824천원	▶발전기금위원회의 인적 구성 강화 및 관계 개선 추진 ▶중동 및 북동동 상권의 신규 후원의 집 유치를 위한 노력 ▶발전기금 전용 현수막 거치대 설치를 통한 홍보 진작 ▶(잠재)고객기부자 관계개선을 통한 기부 유도 ▶장례메뉴얼 제정을 통하여 지역 내 독거 기부자 기부 유치	대외 협력팀

공약사항	추진 상황				추진 실적(2016~2017)	향후 추진 계획 (2018~2019)	담당부서
	미추진	추진중(진행률)	30~70%	70%~			
Ⅲ. 1-1 학문의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조달		●			▶개인연구 170개 과제/ 1,219천원 지원('16.6.) ▶기초학문 분야진흥사업(3개) 30백만원 지원('16.6.)	▶지속적인 지원방안 마련	연구 지원과
Ⅲ. 1-2 충남대학교 융합연구원 신설	●				▶학문연계를 위한 학과 간 연계방안 수립 등 선행기반 필요	▶단과대학별 연구소 중심의 연구원 설립 방안 마련	연구 지원과
Ⅲ. 1-3 인문사회·예체능·기초과학 진흥사업 지원 확대		●			▶기초학문지원을 위한 기초학문분야 연구원 지원('16.6.) -연구원별 1천만원 지원(3개)	▶기초학문분야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연구 지원과
Ⅲ. 1-4 학과 간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	▶인문학 관련 교양 교과목 8학점 필수 이수 학칙 개정('17.2.)		교무과

공약사항	추진 상황			추진 실적(2016~2017)	향후 추진 계획 (2018~2019)	담당부서
	미추진	추진중(진행률)	완료			
	~30%	30~70%	70%~			
Ⅲ. 2-1 글로벌 산학협력 네트워크 강화		●		▶ New-York Office를 Bloomfield대학 내 설치 ▶ 영국 Surrey연구단지와 산학협력 체결('16.4.) ▶ 싱가포르 난양기술대 글로벌 기술창업 산학협력중개센터 구축 ▶ 인도네시아 PT SIDO MUNCHUL과 협약체결('16.3.) ▶ 중국 위해시와 과학기술교류 MOU 체결('17.8.) ▶ 알리바바 크라우드 아카데미 운영('17.9.)	▶ 중부권 기업의 세계화 지원 -국제화 지원 기업 지원 센터 운영 -글로벌 산학협력 MOU 체결 확대 및 글로벌 인턴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	LINC+ 사업단
Ⅲ. 2-2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웰빙 캠퍼스 구축	●			▶ 사업시기 조정	▶ 시설 마스터플랜 수립 시 반영	시설과
Ⅲ. 2-3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		●		▶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공정여행', '충남대형 Enactus' 개발 ▶ CNU 배달강좌제 시스템 구축 및 시행 -대학 내부자원과 지역 수요를 매칭·제공, 교육소의 청소년의 교육역량 강화를 통한 대학의 사회적 책임 수행	▶ 학내 기관과 학생으로 구성된 학내 협의체 구성을 통해 글로벌 리더양성 교육 및 활동,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 ex) 공정여행,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등	백마사회 공헌센터
Ⅲ. 2-4 지역 공동체와 연계한 재능 기부 활성화		●		▶ 학내 사회공헌활동 관리를 위한 실적 조사 시스템 구축(백마사회공헌센터 업무 체계화)	▶ 학내 사회공헌활동 실적 조사 및 관리 ▶ 지역사회 현안을 다루는 강의교재 개발('18.2.)	백마사회 공헌센터
Ⅲ. 2-5 학교-동문-지역 상생 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		▶ 대외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한 학교와 지역 간의 상생 네트워크 구축 ▶ 학교-동문-지역사회와의 소통강화 -온라인콘텐츠(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제작 -온라인 뉴스레터, 학내소식지 CNU Style 배포 ▶ 충남대 동문가족 6.25참전용사 초청 간담회 실시('16.6./ '17.6.)	▶ 학교-동문-지역사회와의 소통강화 -온라인콘텐츠: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지속적인 추진 -온라인 뉴스레터 제작 추진 -학내소식지 CNU Style 연4회 제작 추진 -언론위원회 구성 추진 ▶ '18년도 충남대 동문가족 6.25참전용사 초청 간담회 행사 추진	대외 협력팀
Ⅲ. 2-6 충청인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활성화		●		▶ "CNU 창조경제 리더아카데미" 교육과정 운영('16학년도) ▶ 한국원자력교육센터 외 3개기관 협약과정 운영	▶ "CNU 행복경제 리더 아카데미" 운영 추진 ▶ 4차산업혁명 관련 교과목 운영 예정 -IOT·FTA교육과정 및 자격과정 운영	평생 교육원

공약사항	추진 상황			추진 실적(2016~2017)	향후 추진 계획 (2018~2019)	담당부서
	미추진	추진중(진행률)	완료			
	~30%	30~70%	70%~			
Ⅲ.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산학협동캠퍼스 3-1 건립	●			▶ '16년 행복청 컨소시엄으로 세종산학융합지구 캠퍼스 조성사업 신청 참여(Bio, IT융합학과) 결과: 미선정('16.11.) ▶ '17년 조성사업 신청 무산	▶ 세종 및 내포 신도시 대학캠퍼스조성사업 협의체 구성 운영 ▶ 대전시 4차산업특별시 Startup Town 및 도시재생사업 공동 추진	정책연구단(기획평가과)
Ⅲ. 충남대 세종캠퍼스 설립 추진과 대학병원연계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원		●		▶ 충남대 장대동 부지와 세종시 대학부지 맞교환을 위한 내부의 업무협약 체결('17.3.) ▶ 세종특별자치시와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7.3.)	세종 캠퍼스 설립과 세종충남대병원 연계 학문 특성화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 추진	기획평가과
Ⅲ. 글로벌 융·복합 교육 및 연구중심의 대덕캠퍼스 운영	●			▶ 세종캠퍼스 설립과 병행 추진 필요	▶ 세종캠퍼스 특성화와 함께 추진	기획평가과
Ⅲ. 대전·세종 충청지역 상생 협력 네트워크 강화		●		▶ 공주교육대학교와 교육인재 공동양성 협약 체결('16.9.) ▶ 대전·충남지역 국립대학 간 연계협력 협약 체결(공주교대, 공주대, 한밭대, '17.1.) ▶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 체결(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대전상공회의소, 세종시, 대전세종연구원, '17.3.)	▶ 지역 유관기관과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및 연계 활동 지속 추진	기획평가과

공약사항	추진 상황			추진 실적(2016~2017)	향후 추진 계획 (2018~2019)	담당부서
	미추진	추진중(진행률)	완 료			
		~30% 30~70% 70%~				
Ⅲ. 4-1 지역선도대학 사업을 활용한 글로벌 캠퍼스 네트워크 확충		●		▶충청권대학 외국인유학생 공동 겨울 계절학기 및 해외단기연수(상해) 진행('17.12.~'18.1.) ▶충청권 '외국인유학생 한마당' 개최('17.05.) 및 지역 연계 문화체험 프로그램 5건 진행 ▶지역중소기업-외국인 유학생간 상생캠프(LOTC) 7회(캐나다 외 4개 국가) 진행('17.6.~12.) ▶지역중소기업-외국인 유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진행('17.09.~12.) ▶'16~'17학년도 계절학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학생 초청 및 학점인정 절차 지원 -경상대학 75명 파견, 71명 초청 -사회과학대학 22명 파견, 43명 초청 -기초교양교육원 52명 파견 -CORE사업단 111명/ 공자학원 38명 파견 -약학대학 8명 초청 -농업생명과학대학 12명 파견 ▶아시아비즈니스국제학과 신설('17.2.) ▶글로벌인재양성센터 건립 및 개관식 개최	▶충청권 대학 외국인 유학생 공동 겨울 계절학기 및 해외단기연수/ 글로벌 현장 학습 프로그램/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글로벌 문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 ▶지역중소기업-외국인 유학생간 상생캠프(LOTC) 확대 운영 ▶이스라엘 5개 대학 및 고등교육청과 학술 교류 증진 협력 추진 ▶계절학기 학생 초청 및 파견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지속적인 지원 계획 ▶농업생명과학대학(신품공학과)과 베트남 하노이 공과대학의 학생교류협약 추진 ▶본교 3개 학과 참여, 아시아권 대학과의 트위닝 프로그램 개발 추진('18학년도 2학기 학생모집 계획)	국제 교류과
Ⅲ. 4-2 학과중심의 국제교류 활성화 및 지원 체계 개선		●				국제 교류과
Ⅲ. 4-3 국제학부 신설 및 글로벌 센터 건립			●			교무과 국제 교류과
Ⅲ. 4-4 해외 우수 자원 유치 In-bound 프로그램 활성화			●	▶'16~'17 In-bound 프로그램 활성화 -일반 교환학생 120명 초청 -GSP 교환학생 41명 초청 -북수학위 3명 초청 -국제학기계절학기 161명 초청 -ASEAN 우수 이공계 대학생 연수 48명 초청 -주요국가 학생 초청 연수 30명 초청 -국제동기계절학기 56명 초청	▶아시아권 대학과의 트위닝 프로그램 개발 -일반협정 1개교, 교환학생 협정 1개교, 트위닝 협정 1개교 신규 체결 ▶인도네시아 교육부 초청 및 트위닝 프로그램 In-bound 학생 장학금 지원 논의('17.12~)	국제 교류과
Ⅲ. 4-5 학생의 국제역량 강화를 위한 Out-bound 프로그램 확대		●		▶'16~'17 Out-bound 프로그램 확대 운영 -교환학생 202명 파견 -글로벌인재양성 해외파견 368명 선발파견 -북수학위 14명 파견 -방문학생(공자학원 포함) 48명 파견	▶파란사다리 사업 운영 -관공현 교육기회 포장을 위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취약한 여건 속에서도 자기 개발과 진로 개척에 꿈과 열정을 지닌 대학생들에게 해외연수 경험 지원 -'18 여름방학 80명 정도 선발.파견	국제 교류과

공약사항		추진 상황			추진 실적(2016~2017)	향후 추진 계획 (2018~2019)	담당부서
IV. 1-1	CNU포럼 및 연 2회 이상의 단대별 의견수렴 정례화	미추진	추진중(진행률)		추진 실적(2016~2017)	향후 추진 계획(2018~2019)	담당부서
			~30%	30~70%			
IV. 1-1	CNU포럼 및 연 2회 이상의 단대별 의견수렴 정례화			●	▶ Jump! CNU Forum 17회 개최('16.11.~) ▶ '16학년도 단과대학 순회간담회 11회 개최('16.11.~'17.1)	▶ Jump! CNU Forum 활성화 추진	담당부서
IV. 1-2	대학신문방송의 혁신을 통한 스마트 소통 문화 구현			●	▶ 신문방송사 및 총대신문 페이스북 페이지 등을 활용한 신문기사 및 방송 프로그램 게시 및 홍보('16.3.~)	▶ 총대신문 페이스북 페이지를 활용한 기사 링크 및 의견 수렴 반영, 홈페이지 댓글 소통 및 지면 참여 확대, 총대방송 양방향 소통 제작 등 학내 참여 문화 개선 ▶ 소통 중점 신규 콘텐츠 발굴 적극 추진	기획 평가과 신문 방송사
IV. 1-3	정책 제안 아이디어 활성화를 위한 포상제 실시		●		▶ '18학년도 Jump! CNU Forum 계획 수립 시 정책 제안자 포상 방안 검토	▶ '18학년도 Jump! CNU Forum부터 정책 제안자 포상 추진	기획 평가과
IV. 1-4	대학본부/ 교수회 간담회 활성화 및 중간평가 의무화			●	▶ 교수회와 비정기적 간담회 개최 및 협력 체계 강화 ▶ 총장 취임 3차년도 미도래	▶ 대학본부와 교수회 간 정기 모임 추진 ▶ 총장 취임 3차년도('18년도)에 중간평가 실시 계획 수립	기획 평가과
IV. 1-5	소통과 복지를 위한 전문 위원회 신설		●		▶ 정책제안 범위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단 위원 확대('16.10.)	▶ 교원평가, 구성원 복지 관련 정책제안 및 규정 개정	정책 연구단
IV. 1-6	공유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및 프로그램 활성화			●	▶ '사회봉사센터' 신설('16.11) ▶ '백마사회공헌센터'로 확대 개편 및 사업 실질 운영('17.7.) ▶ '아름다운 CNU 만들기 운동' 추진 ▶ 대학·NGO·지자체 협의체 구성	▶ 대학자원공유 협의체 및 학내 자원을 활용한 사회공헌정책 시행 ex) 충남대형 인액터스 개발 및 CNU 배달 강좌제 실시 ▶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협약 체결(대전 세종연구원 외 10곳)('18.1.)	백마사회 공헌센터
IV. 1-7	기획평가과 활성화 및 공약이행 점검			●	▶ 총장 취임 1주년 공약사항 추진현황 점검('17.4.)	▶ 매년 총장 공약사항 점검 예정	기획 평가과

공약사항		추진 상황			추진 실적(2016~2017)	향후 추진 계획 (2018~2019)	담당부서
IV	2-1	우수한 교직원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총무과
IV	2-2	직업기초능력 함양 프로그램 확대 및 2-2 생애주기별 역량 관리 시스템 구축					기초교양 교육원
IV	2-3	교수 학습법 개발을 위한 지원 확대					총무과
IV	2-4	이탈의 교직원상 수여 및 우수사례집 발간					총무과
IV	2-5	국내외 대학 파견 연수 프로그램 확대					교무과
IV	2-5	국내외 대학 파견 연수 프로그램 확대					총무과

공약사항	추진 상황			추진 실적(2016~2017)	향후 추진 계획 (2018~2019)	담당부서
	미추진	추진중(진행률)	완료			
	~30%	30~70%	70%~			
IV 3-1 여성교직원의 친환경 복무환경 구축			●	▶ 대학회계직원 배우자 동반 휴직 신설(3년, 2년 연장 가능) 및 육아휴직 기간 최대 3년으로 확대(공무원 기준 준용)(‘16.3.) ▶ 여성 교직원 복무 개선 방안 마련		
IV 3-2 생애 맞춤형 가족복지제도 개선		●		▶ 맞춤형복지포인트를 기간제 계약직까지 확대(‘17.1.)	▶ 맞춤형 복지포인트 가족복지 확대: 둘째, 셋째 자녀 출산 축하 복지 점수 확대	총무과
IV 3-3 건강한 직무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 맞춤형 회계, 조달교육 현지방문 실시(‘16.12.~‘17.1.) ▶ 대경정책력 제고를 위한 직원 1급 진로 지도사 자격증 취득(‘17.2./ ‘17.7.) ▶ 중앙교육연수원 현지 방문교육 실시(‘17.11.)	▶ 대전·충남권역 연합으로 국가기관 현지 방문 교육 개설 다양화 ▶ 진로지도사, 인성지도사 등 학생 상담 역량 교육	총무과
IV 3-4 대학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한 학생복지 개선			●	▶ 학교 경영자 배상책임보험 학생수혜 예산 확보(‘17년 예산: 82,000천원) ▶ 제1학생회관 푸드코트 코너 재정비 및 식단 메뉴 개발(‘16.8) ▶ 천원의 아침 및 북부캠퍼스 석식 운영(‘16.9) ▶ 한누리회관 소강당 집기 교체(‘17.10.) ▶ 학생회관 회의실 정비(‘17.6.)	▶ 남부운동장 평탄화 및 체육시설(농구장, 족구장) 환경 개선(‘18.2.) -소요예산 약 20,000천원 ▶ 제1, 3학생회관 한누리회관 방충망 보수(‘18.2) -소요예산 약 2,000천원 ▶ 학생전용공간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제1학생회관 리모델링 실시(‘19.3)	학생과
IV 3-5 교직원의 여가활동을 위한 친환경 웰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혁신방안 수립(‘16.5) -수요일 '가족의 날'정도로 조기 퇴근 유도 -탄력근무 유형(09:30~18:30) 추가 개설	▶ 직원 직무스트레스를 진단하여 개인 맞춤형 힐링 교육 운영 추진 예정	총무과

공약사항	추진 상황			추진 실적(2016~2017)	향후 추진 계획 (2018~2019)	담당부서
	미추진	추진중(진행률) ~30% 30~70% 70%~	완료			
IV. 4-1 대학생 문화를 담은 도서관 운영		●		▶ 스마트 열람 환경 구축 -원스톱 검색 환경(CNU Discovery) 운영 -모바일 좌석관리 시스템 운영 -Smart Creative 학습공간 마련 -시공간 제약 없는 학습환경 구축 -'무인 자동화 시스템' 추가 도입 ▶ 공유와 개방을 통한 동반성장 선도 -지역사회 대학 및 연구기관 간 자료 및 시설 공동 이용 협약 체결 -도서관 일반회원제 운영: 1,198명 ▶ 수요자 맞춤형 학술정보서비스 운영 -강의지원, 상호대자/원문복사, 희망도서 신청, 채배달 등 학술 및 연구 지원 -도서관 이용 및 학술정보 활용 교육 실시 ▶ 창조학술정보관 설계 추진 -기간: '16.1.'~'17.4. -연면적: 12,000㎡ -총사업비: 263억원 ▶ 창조학술정보관 착공('17.7.)	▶ 스마트 열람 환경 구축 -다양한 e-컨텐츠 확보 ▶ 공유와 개방을 통한 동반성장 선도 -지역사회 대학 및 연구기관 간 협약 체결로 자료 및 시설 공동이용 활성화 -지역사회 열린도서관 운영(일반회원제 확대 운영) -지역사회 문화 전시행사 추진 ▶ 수요자 맞춤형 학술정보서비스 운영 -학술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학술정보서비스 제공 -도서관 이용자 교육 활성화 ▶ 신축 도서관 인테리어 및 시스템 구축 계획 -소요예산계획 -시설운용계획 -보존서고 이전계획 ▶ 기존 도서관 재배치 계획	도서관
IV. 4-2 중앙도서관 증축과 연계한 문화정보 소통형 University -Mall 건립		●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운영주체 등)	▶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 시설 마스터플랜 수립 시 반영	도서관
IV. 4-3 환경친화형 첨단 교직원회관 및 게스트 하우스 건립		●		▶ 고혈압 관리 등 만성질환 예방중심의 건강 상담 운영: 147건 ▶ 충남대병원 의사 파견진료: 243건 ▶ 입학 실기시험 시 충남대병원 의료인 및 구급차 지원('17.1.)		시설과
IV. 4-4 학내 보건진료의 개선 및 대학병원과의 협력 제고		●			▶ 건강진진프로그램 개발 및 강화 ▶ 입학 실기시험 시 충남대병원 의료인 및 구급차 지원	학생과 (보건 진료소)

총장 및 본부 업무수행 중간평가 특별위원회

박 수 연 (교수회 부회장, 위원장)
강 석 구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소재공학과)
유 재 형 (자연과학대학 지질환경과학과)
육 소 영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 병 화 (의과대학 생리학과)
정 선 기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오덕성 총장 및 본부 업무수행 중간평가 결과 보고서

인 쇄 : 2018년 5월 30일
발 행 : 2018년 5월 30일
편집인 : 총장 및 본부 업무수행 중간평가 특별위원회
발행인 : 충남대학교 교수회
3413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99
본부별관(E7-1) 5층 515호
전화) 042-821-5090